# 고대 복음의 회복: 알렉산더 캠벨과 침례의 목적*

# The Recovery of the Ancient Gospel: Alexander Campbell and the Design of Baptism




**존 마크 힉스(John Mark Hicks, Lipscomb University)**

**번역: 조동호(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알렉산더 캠벨(1788-1866)은 미국 환원운동이 개척지를 따라 처음 확산되던 시기에 그 운동의 지도자로 널리 인정받았다. 1820년대와 1830년대에 환원운동에 추진력을 부여한 것은 그의 지도력과 저술이었다. 실제로 그가 외친 "고대 질서(Ancient Order)"와 "고대 복음(Ancient Gospel)"의 회복은 미국 환원운동의 구호가 되었다.[1]

---

* 이 글은 데이비드 플레처(David Fletcher)가 편집 출판한 『침례와 죄 사함: 역사적 관점』(*Baptism and the Remission of Sins: An Historical Perspective.*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 1990) 제 4 장, 111-160 쪽에 처음 실렸다.

[1] Campbell은 자신의 첫 잡지인 *The Christian Baptist*가 발행된 7년 동안 자신의 핵심 사상과 개혁 방침을 담은 두 개의 주요 연재 시리즈를 집필했다. 첫 번째 연재의 제목은 "사물들의 고대 질서의 회복(A Restoration of the Ancient Order of Things)"이었으며, 1825년 1월 3일부터 1829년 9월 7일까지 30편이 실렸다. 이 연재는 근본적으로 가시적 교회의 참된 표지들을 설명한 것이었다. 두 번째 기획 연재 시리즈의 제목은 "고대 복음(Ancient

따라서 『크리스천 뱁티스트』(Christian Baptist, 1823-1830)와 『밀레니얼 하빈저』(Millennial Harbinger, 1830-1870)[2]를 통해 전개된 캠벨의 신학은 이 운동을 지배했으며, 특히 초기에는 그 영향력이 가장 강했다.

운동 초기에 그의 신학은 영향력이 컸을 뿐 아니라 운동의 방향과 계획을 규정했다. 그는 운동의 의제를 설정했다. 이는 특히 침례 문제에서 그러했다. 그의 논쟁과 저술, 영향력으로 침례가 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사실 캠벨은 자신의 개혁과 일치 계획이 침례 문제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1852년*, 이 문제를 둘러싼 거의 30년간의 논쟁을 돌아보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동일한 개념을 불러일으키는 명확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용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교회가 실제로, 가시적으로 하나가 되려면 하나의 침수세례, 곧 하나의 침례가 있어야 한다.[3]

따라서 캠벨에게 침례는 가시적 교회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되었다. 그 결과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그가 일치운동을 실행하던 초기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결국 신자의 침수세례가 옳고 합당하다고 모두 믿는다면, 왜 그 제도에 대해 상충하는 의견을 내놓는 대신 그 형식만을 바탕으로 하나가 될 수 없겠는가? 그래서 캠벨은 자신의 개혁 초기 10년(1823-1832)의 상당 부분을 각 교파가 자기 의견을 버리고 모두가 성경적 침례라고 믿는 것, 곧 신자의 침수세례를 중심으로 일치하도록 촉구하는 데 쏟았다.

그러나 신자의 침수세례가 성경적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캠벨은 자신이 침례의 참된 목적과 의미라고 믿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그의 일치 운동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이 발견은 결국 "개혁 침례교인들"(캠벨의 추종자들을 부르던 명칭)과 "정규 침례교인들"(Regular Baptists, 당시 캠벨이 소속되어 있던 침례교 집단)이 갈라지는 이유가 되었다. 정규 침례교인들은 "물에 의한 구원"(water

---

Gospel)"이었으며, 1828년 1월 7일부터 1828년 11월 3일까지 10편이 실렸다. 이 연재는 가시적 교회와 구원에 들어가는 시점으로서 침례의 목적을 논의했다. (이하 *Christian Baptist*는 CB로 약칭한다.)

[2] *Millennial Harbinger*는 Campbell이 사망한 뒤에도 그의 사위 Robert Richardson에 의해 4년 동안 계속 발행되었다. 1870년에 발행이 중단되었다. (이하 *Millennial Harbinger*는 MH로 약칭한다.)

* 이 글의 저자 JMH 는 1852 년을 1851 년으로 오기함. 각주 3 번 참조.

[3] MH 22 (1852) 210.

salvation)이라는 율법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과 캠벨의 추종자들 사이에 경계선을 그었다.[4] 이 장의 목적은 알렉산더 캠벨의 사상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발견"과 그 정식화 및 실행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 A. 역사적 배경

### 1. 캠벨의 신학적 배경

알렉산더 캠벨의 아버지 토머스 캠벨(1761-1854)은 스코틀랜드 분리파 반버거 교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였다.[5] 분리파 교회는 교회 체제상 장로교였으며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였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알렉산더 캠벨은 여러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시에 아버지의 지도를 받았다. 실제로 알렉산더는 1805년부터 리치 힐 아카데미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르쳤다. 1807년 건강 문제로 가족보다 먼저 미국으로 건너간 토머스는 분리파 교회 내 북미 연합대회의 샤티어스 노회(the Chartiers Presbytery of the Associate Synod of North America)에 배속되었다.

알렉산더는 미국행 배를 기다리는 동안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1년간(1808-1809) 공부했다. 글래스고에서 공부한 것 외에도 조지 유잉*의 학교(seminary)에 다녔다. 독립교회 지도자였던 유잉은 할데인 형제가 침수세례를 유일한 성경적 침례 형식으로 받아들이자 최근 그들과 결별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캠벨의 신학에는 개혁주의와 유아세례론의 개념들이 깊이 배어 있었다.

---

[4] Hillyer H. Straton, "Alexander Campbell's Influence on the Baptists," *Encounter* 30.4 (1969) 355-365 참조. 이러한 결별은 Campbell이 *Christian Baptist*의 발행을 중단한 1830년경에는 분명해졌으며, 그는 이를 MH로 대체했다. 여러 침례교 협의회들이 Campbell과 그의 추종자들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The Dover Association (December 31, 1830; MH 2 [1831] 76-84 참조), Appomattox Association (MH 1 [1830] 261-62 참조), 그리고 가장 유명한 Beaver Creek Anathemas (CB 7 [1830] 198-203, 292-294; MH 1 [1830] 174-177 참조)가 그것이다. 이 모두의 공통 쟁점은 침례의 목적에 관한 Campbell의 견해였다.

[5]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모든 전기적 정보는 Robert Richardson, *Memoirs of Alexander Campbell*, 2 vols (Philadelphia: J. B. Lippinocott & Co., 1868; 최근 재판 Indianapolis, IN: Religious Book Service, n.d.)에서 가져왔다. 초기 환원운동에서 침례가 발전한 과정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Carl Spain, "Baptism in the Early Restoration Movement," - *Restoration Quarterly* 2 (1957), pp. 213-219 참조.

* 이 글의 저자(JMH)는 Greville Ewing 를 George Ewing 으로 오기함.

그러나 A. 캠벨이 1809년 미국에 도착할 무렵, 그는 장로교의 교회 정치 제도에 불만을 품고 독립교회주의(예컨대 유잉과 할데인 형제)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1809년 봄에는 당시 교회의 실정에 대한 불만으로 분리파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미국에 도착한 알렉산더는 아버지가 여러 혐의로 징계를 받고 분리파 목사직을 정지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혐의 중 하나는 토머스가 신앙고백서와 신조를 교제의 조건으로 삼는 데 신적(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믿었다는 것이었다. 결국 1810년 5월 18일, 토머스는 샤티어스 노회에 의해 면직되었다.

그동안 토머스는 다른 독립 성향의 장로교인들과 함께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에 "워싱턴 그리스도인 협의회"를 설립했다(1809년 8월 17일). 토머스가 이 협의회의 기본 문서인 『선언과 제언』(The Declaration and Address)을 작성했다. 주요 강조점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성경만의 권위, 개인적 판단의 권리, 교파주의의 폐해에 대한 호소였다. 1809년 10월 알렉산더가 스코틀랜드에서 도착했을 때 부자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교파적 장로교주의, 곧 분리파 교회를 거부했고, 이제 독립교회주의를 옹호하고 있었다.

다른 장로교 조직들과 연합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캠벨 부자는 1811년 5월 4일 독립교회를 세웠다. 버지니아주 베다니 인근(현재 웨스트버지니아주 베다니)에 위치한 이 교회는 "브러시런 교회"(Brush Run Church)로 불렸다. 여기서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침례에 대한 브러시런 교회의 태도이다.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 한 가지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뿐이라고 결정했다.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공로적 원인은 무엇인가?" 물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 그러나 브러시런의 가시적 교회 교제에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침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캠벨 부자가 피츠버그 대회(분리파와 대조되는 연합파 장로교 시노드/synod)에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세례를 성찬 교제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삼지 않았고 유아세례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었다.[6] 실제로 브러시런 교회의 한 교인은 1811년 7월 4일 침수세례를 받을 때까지 어떤 세례도 받은 적이 없었다.

따라서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캠벨은 유아 때 세례를 받았다. 그는 철저히 개혁주의적, 곧 칼뱅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장로교회에서 자랐다.

---

[6] Richardson, *Memoirs*, I:335-347 참조. 이 초기 시기는 William H. Hanna, *Thomas Campbell: Seceder and Christian Union Advocate* (재판; Joplin, MO: College Press Publishing Co., Inc., n.d.)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독립교회주의로 방향을 바꾸면서 그는 세례를 교제의 조건으로 삼는 것을 거부했고 유아세례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 2. 캠벨의 침수세례

브러시런 교회가 시작된 거의 직후, 교인 두 명이 자신들은 침수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7]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토머스 캠벨은 침수세례만이 침례라고 인정했고, 다소 주저하면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기로 동의했다. 이들은 다른 한 사람과 함께 1811년 7월 4일 침수세례를 받았다. 흥미롭게도 제임스 포스터는 비성경적인 세례를 받은 사람(토머스 캠벨은 유아 때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에 해당했다)이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 질문은 한동안 회피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브러시런 교회에는 약 30명의 교인이 있었다.

브러시런 교회는 침례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캠벨 부자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설교한 것은 세 번뿐이었다(1810년 2월 3일, 1811년 5월 19일과 6월 5일). 캠벨 부자가 유아세례를 인간이 만들어 낸 것으로 거부했다는 점은 점차 분명해졌다. 알렉산더는 첫 자녀 제인이 1812년 3월 13일 태어난 뒤에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대신 이 주제를 철저히 연구하는 데 전념했다. 그 연구의 결론은 캠벨 가족의 삶을 바꾸게 된다.

질문이 달라졌다. 더 이상 "인간이 만들어 낸 유아세례를 거부해도 괜찮은가?"가 아니었다. 이제 질문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인정하는 신자의 침례를 생략해도 되는가?"였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이며 따라서 침례

---

[7] James Foster는 아일랜드 Rich Hill의 독립파 교회 회원이었으며, Campbell 가족의 설득으로 그들과 함께 미국으로 왔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유명한 스코틀랜드 침례교인인 John Walker와 Alexander Carson의 설교를 들었다. 실제로 Alexander Campbell은 1815년 삼촌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이제 교회 정치에서는 독립파이며, 복음에 관한 믿음과 견해는 John Walker가 Alexander Knox에게 보낸 일곱 편지에 제시된 것과 같고, 세례에 관한 한 침례교인이다" (H.C. Armstrong, "Disciples and Scotch Baptists," *The Shane Quarterly* 2의 인용을 따름 [Apr-Jul 1941] 360). James Foster는 Christian Association과 Brush Run 교회의 창립자 중 한 사람으로서 Campbell 부자의 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Brush Run 교회 설립 직전에 Campbell은 유아세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문제를 성찬 교제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비성경적임을 확신하므로, 나는 이를 그냥 넘겨두었다. 이 문제들에 관해서는 내가 생각할 자유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각할 자유를 주고 싶다" (Richardson, *Memoirs*, I:392.).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그는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침수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알렉산더는 곧바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열의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그들은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에서 안수받은 침례교 목사 마티아스 루스(Mathias Luce)에게 알렉산더의 단순한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1812년 6월 12일 알렉산더 캠벨과 아내, 토머스 캠벨과 아내, 토머스의 딸 도로시아(Dorothea), 제임스 헤이넌(James Hanen) 부부가 침수세례를 받았다. 다음 날 브러시런 교회의 다른 교인 13명이 토머스 캠벨에게 침수세례를 요청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규 침례교 방식으로 침례 받지 않았음을 자주 회상했다.[8] 그는 성령의 구원 체험을 증언하지도 않았고, 어떤 침례교회가 그의 침수세례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단순한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루스에게 침수세례를 받았다. 캠벨이 성경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에게 요구된 것은 그것뿐이었다. 캠벨은 이 입장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단순한 고백에 근거하여 침수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제이자 가시적 교회의 동료 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

### 3. 침례교인으로서의 캠벨

1812년 가을 알렉산더 캠벨은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의 연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진행에 비교적 불만족스러웠지만, 그는 지역 침례교회들의 설교 초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관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다. 1813년 가을 브러시런 교회는 “성경 외에는 어떠한 연합이나 친교의 조건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레드스톤 협의회에 가입을 신청했다. 이 신청은 1815년에 승인되었다.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의 독립 협의회로 시작된 모임이 이제 침례교 협의회의

---

[8] MH 3 (1832) 319.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16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Campbell은 이렇게 썼다. “나에게 침례를 베푼 침례교인과 특별한 약속과 합의를 맺어, 나는 바로 이 고백에 근거하고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 고백만을 고수한 탓에 우리는 그 공동체와 갈라졌다. 그들은 흔히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침례를 베푼다” (MH 9 [October 1838] 467). MH 19 (1848) 282-283과 CB 2 (1824) 37의 설명도 참조. Campbell의 관심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이 구원받는 시점으로 여기지 않았다. 실제로 Richardson은 당시 침례 자체도 일치에 종속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Richardson, *Memoirs*, I:399. 참조).

일부가 되었다. 브러시런 교회는 여전히 사상적으로 상당히 독립적이었지만 펜실베이니아와 버지니아의 정규 침례교(Regular Baptist) 교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알렉산더는 대부분의 시간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의 침례교회들 사이에서 순회 설교를 하며 보냈다. 버지니아주 웰스버그에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한 기금을 모우려고 동부 해안 지역인 트렌턴, 뉴욕, 워싱턴까지 여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레드스톤 협의회가 캠벨 부자에게 늘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1816년 토머스 캠벨과 피츠버그의 독립적 침수세례주의자 모임이 레드스톤 협의회 가입을 신청했을 때, 그들은 1747년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를 엄격히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1816년 캠벨은 훗날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될 "율법에 관한 설교"를 했으나 협의회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협의회 구성원들이 보기에 그는 구약과 신약을 지나치게 날카롭게 구분했다. 그때부터 협의회의 33개 교회 중 약 10개 교회만이 캠벨의 순회 전도 및 설교 사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캠벨 부자는 레드스톤 협의회에만 활동을 한정하지 않았다. 1818년 캠벨은 자신의 집에서 운영하는 버펄로 학교(Buffalo Seminary)를 세웠다. 아버지는 1819년부터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도왔다. 비록 이 학교는 오래 존속하지 못하고 1822년에 문을 닫았지만, 캠벨은 이를 자신의 개혁 사상을 전파할 기회로 여겼다. 학교가 문을 닫자 그는 곧바로 첫 정기간행물인 『크리스천 뱁티스트』(*Christian Baptist*)를 시작했다. 캠벨 운동의 세력은 크지 않았으나 1819년에는 여섯 독립교회가 관련되어 있었고 전체 교인은 200명이었다. 이 가운데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 소속은 브러시런 교회뿐이었다.

### B. 1820년과 1823년의 공개 신학 논쟁들

침례교 협의회들 소속으로 활동하던 시기(1815-1830)[9]에 캠벨은 일치와 개혁에 관한 자신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는 침례교 공동체 내부에서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첫 정기간행물의 이름인 『크리스천 뱁티스트』가 이를 보여 준다. 그가 결국 침례교와 결별한 것은 침수세례의 목적에 관한 견해가 발전했기 때문이었다. 이 절에서는 그 발전의 초기 시기를 살펴본다.

---

[9] Campbell은 1823년 Redstone Association에서 탈퇴하여 1824년 Mahoning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했다. 그는 Mahoning Association이 1830년 스스로 해산할 때까지 그 회원으로 남았다.

## 1. 캠벨-워커 공개 논쟁[10]

1819년 가을 침례교 목사 존 버치(John Birch)는 오하이오주 마운트플레전트(Mt. Pleasant) 인근 읍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지역 분리파 목사 존 워커는 유아세례를 옹호하는 일련의 설교를 했다. 버치가 그중 한 설교를 들은 뒤 두 사람 사이에 긴 서신 교환이 시작되었다. 워커는 어느 침례교 목사와든 이 문제를 논쟁하겠다고 도전했다. 버치는 오하이오주 마운트플레전트에서 약 23마일 떨어진 곳에 살던 알렉산더 캠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세 차례 시도한 끝에 버치는 마침내 캠벨을 설득하여 워커와 논쟁하도록 했다.

논쟁은 1820년 6월 19일 시작되어 다음 날 끝났다. 그 직접적인 결과는 캠벨의 명성이 높아진 것이었다. 모두가 워커는 논쟁을 잘 수행하지 못했고 캠벨은 탁월했다고 인정했다. 캠벨의 명성은 서부 보류지 지역(펜실베이니아 서부와 오하이오 동부)에 퍼졌다. 논쟁 기록은 출판되어 곧바로 4,000부가 팔렸다.

이 논쟁은 캠벨의 침례 신학 발전을 살피는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침수세례의 목적 혹은 의도에 관한 그의 견해를 파악할 수 있는 긴 논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혁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이 초기 단계에서 캠벨이 무엇을 말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a. 논쟁의 기본 쟁점.*** 워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유아세례를 옹호하려 했다. 특히 그는 은혜 언약에 논증의 근거를 두었다. 전형적인 장로교 논법에 따라 세례와 할례가 모두 동일한 은혜 언약의 인장 또는 표징이라고 주장했다. 할례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 언약의 복을 확증하거나 인쳤듯이, 세례도 그리스도인과 그 후손들에게 은혜 언약의 복을 확증하거나 인친다는 것이다. 워커는 개회 발언에서 이를 간결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9쪽).

---

[10] Campbell-Walker Debate의 모든 인용은 Alexander Campbell, *Debate on Christian Baptism Between Mr. John Walker, a Minister of the Secession, and Alexander Campbell. To Which is Added a Large Appendix by Alexander Campbell. Second Edition Enlarged with Strictures on THREE LETTERS Respecting Said Debate, Published by Mr. Samuel Ralston, a Presbyterian Minister* (Pittsburg: Eichbaum and Johnston, 1822; 재판 Hollywood: Old Paths Book Club, n.d.)에서 가져왔다. 위 책에서 인용한 부분은 본문에 표시한다. Campbell의 논쟁에 관한 역사적 배경의 상세한 논의와 분석은 Bill J. Humble, *Campbell & Controversy: The Debates of Alexander Campbell* (증보 재판;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mpany, 1986) 참조.

> 나는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여 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유대교회를 세운 근거가 된 언약, 곧 할례가 그 인(印)으로 주어진 언약은 그리스도교회를 세운 근거가 된 언약, 곧 세례가 그 인으로 주어진 언약과 동일하다. … 따라서 믿는 자들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캠벨은 침례와 할례가 서로 다른 두 언약을 나타내므로 침례가 할례를 대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두 의식 뒤에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현세적 복만을 전달했다"(17쪽).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현세적 약속의 표징이자 인장이었다. 반면 침례는 할례가 약속하지 않았던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약속한다(18쪽). 침례는 새 언약에서 나오는 영적 복을 상징하지만 할례는 엄격히 옛 언약에 속한다. 새 언약은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권위적 근거는 없다(25쪽).

*b. 논쟁에서 제시된 침례의 목적.* 캠벨에 따르면 침례는 받는 사람에게 영적 복을 약속하지만, 오직 "비유적으로" 또는 상징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136-137쪽). 예컨대 디도서 3:5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은 침례와 관련하여 실제적으로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사용된다(137쪽). 침례의 "교리적 의미"는 성찬이 주님의 몸과 피를 "표현"하듯이 복음을 "상징"한다는 것이다(136-137쪽). 캠벨은 다음 긴 인용문에서 자신의 관점을 요약한다(138쪽).

> 그러므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인간의 영혼 전체에 미치는 성령의 영향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사도는 내가 읽어 드린 구절들[로마서 6:4-6, 골로새서 2:12, 베드로전서 3:21을 가리킴—JMH][*]에서 이 주제를 가장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지닌 의미를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며, 이 은혜로운 역사에 참여한 사람을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도록 이끈다고 보여 준다. 따라서 외적 의식은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교리와 유사성을 지녀야 한다. 물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고 인상적으로 나타낸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분의 무덤으로부터의 부활과 새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의무를 적절히 상징한다. 그러므로 물 몇 방울을 뿌리는 것은 침례가 의미하는 바와 유사성이 없다.

캠벨은 침례가 이미 일어난 일의 상징 또는 표징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이미 일어났고, 그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거나 표현하기 위해 그 대상자를 침례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외적 의식은 성령의 역사로 이미 성취된 실재를 "표현"한다. 칭의의 복은 침례 전에 죄인에게 주어지며 침례 없이도 얻을

[*] JMH 는 이 논문의 저자인 존 마크 힉스의 이니셜임.

수 있다. 캠벨이 논쟁 앞부분에서 말한 바와 같다(56쪽).

>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설교자가 침례로 초대하는 사람들을 뜻할 수 없고, 주께서 은혜나 성령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을 뜻한다. 부르심이 복으로 여겨질 때 이 말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느니라."

*c. 부록에서 제시된 침례의 목적.* 캠벨은 논쟁 기록을 출판하면서 유아세례와 관련된 여러 주제를 다룬 긴 부록도 실었다. 이 부록은 논쟁 직후인 1820년 여름에 작성되었다. 그의 주된 관심은 "은혜 언약" 개념을 비판하고 성경의 다양한 "언약들"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구약에 여러 언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154-165쪽).[11]

1. 아담과의 언약
2. 노아와의 언약
3.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신 언약
4. 할례의 언약
5. 시내산에서 온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6. 평화의 언약, 곧 제사장 직분에 관한 언약
7. 다윗과 맺은 왕권의 언약

이 일곱 언약 중 캠벨은 오직 세 언약에만 "인장", 또는 그가 선호한 표현으로 "확증의 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담에게는 생명나무, 노아에게는 무지개, 할례에는 육체의 표가 있었다(168쪽). "이 언약들에 부착된 표지들은 참으로 인장, 곧 확증의 표였으며, 그 실재를 눈에 보이게 입증했다"(168쪽). 이것들은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행위이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인장 또는 확증의 표는 성령이다. 캠벨은 다음과 같이 썼다(169-170쪽).

> 신약 아래에서 유일한 인장은 하나님의 영이 신자의 마음이나 영혼에 새기는 표 또는 인상이다.… 신약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속하는 보증으로 말하는 유일한 인장은 "이 성령의 인장"이다. 침례나 성찬은 결코 그렇게 불리지 않으며, 말의 의미에 충실하려면 그렇게 불릴 수도 없다.…

침례와 성찬은 개인의 믿음을 확증하는 역할만 할 수 있으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인치는" 역할은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선물을 "인치거나"

---

[11] Campbell은 이 언약들 가운데 네 가지가 특정 민족인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율법의 경륜*"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것들은 할례의 언약, 시내산 언약, 평화의 언약, 왕권의 언약이다. 이 네 언약의 모든 복은 "*자연적 출생*"에 의해 누리게 된다 (p. 166).

"보증"하실 수 있다.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의식"(170쪽)이지만 인장은 아니다. 신자의 확신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장뿐이다. 그것은 "충분한 보증과 보증금이며, 이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어떤 외적 의식도 필요하지 않다"(171쪽, 강조는 필자의 것, JMH).

따라서 침례는 성령의 인장을 받는 데 필요하지 않다. 어떤 신자든 침례나 성찬 없이도 새 언약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캠벨은 다음 문단에서 이를 분명히 한다(170-171쪽).

> 이 언약의 모든 복은 지금 천국에 있는 많은 이들, 곧 그 의식들을 받을 수 없었거나 받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천국이나 땅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만큼 온전히 누려졌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고대나 현대의 다른 누구 못지않게 그 복을 온전히 누렸다. 족장 시대와 그리스도교 시대의 많은 이들은 침례 받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 못지않게 구속의 모든 복을 충만히 받았다. 만일 침례와 성찬이 이 언약의 인장이라면, 그것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언약을 누릴 보장을 빼앗긴 셈이며, 따라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확증도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캠벨의 요점은 간단하다. 족장 시대, 모세 시대, 그리스도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의 신자들은 천국의 약속이나 보증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어떤 외적 의식이나 행위의 이용 또는 도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이를 받는다. 분명히 캠벨은 자신만의 개혁주의적 침례 신학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그가 침례를 베푸는 사람들은 이미 약속과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12] 그들은 영적 복을 상징하고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 침례 받는다.

***d. 비판 논평에서 제시된 침례의 목적.*** 출판된 논쟁 기록의 제2판에서 캠벨은 1821년 『장로교 잡지』(Presbyterian Magazine)에 실린 새뮤얼 랠스턴(Samuel Ralston)의 세 편의 편지에 대한 약 60쪽의 답변을 추가했다. 이 답변은 1821년 늦가을에 작성되어 1822년판 논쟁 기록에 실렸다. 따라서 워커와의 논쟁 1년 뒤 캠벨이 침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 준다.

---

[12] 부록 207쪽에 나오는 다음 문답에 주목하라. "문 98. 침례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났다고 믿는가? 답. 그렇다. 사랑의 판단에 따라, 그들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닌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논쟁에서 Walker가 Origen과 Cyprian 같은 고대 저자들을 인용하자 Campbell은 이렇게 답했다. "유아세례를 처음 도입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시행한 세례는 이전에 지은 모든 죄책을 씻어 주는 세례였다. 사실상 그것은 죄를 정화하는 의식이었다. … 그들은 심지어 신자들의 침례조차도 그 의미를 심하게 왜곡하여, 침례를 받기 전에 범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의식으로 만들어 버렸다."(Campbell, *Debate*, pp. 119-120).

「세 편의 편지에 대한 비판」에서 캠벨은 논쟁 기록의 「부록」에서 드러났던 것과 동일한 침례 목적관을 보여 준다. 그는 대부분의 지면을 자신의 입장에 대한 왜곡과 랠스턴의 주요 주장에 답하는 데 쓴다. 쟁점은 여전히 할례의 언약과 새 언약(캠벨의 용어)이 실제로 하나의 동일한 은혜 언약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랠스턴은 장로교 측의 주장을 취한다. 캠벨은 자신의 전제들을 일관되게 적용하며 랠스턴과 논박한다.

랠스턴은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고, 캠벨은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나는 할례와 세례가 주로 신자들을 거룩함 안에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한 성격의 죄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고안된 의식들이라고 본다"(241쪽, 강조는 필자의 것, JMH). 캠벨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241, 243쪽).

> 나는 랠스턴 씨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전체에서 할례나 세례로 회심한 사람의 사례를 하나라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저 없이 단언한다.… 그의 주장은 적어도 네 가지 중대한 오류를 전제로 한다.… 두 번째 오류는 거듭나지 않은 자가 거듭나기 위해 특정 수단을 사용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 또는 성령이 없는 자가 성령 없이 수단을 사용하여 성령을 얻으라는 것이다.

캠벨은 침례와 죄인의 구원 사이에 상징적 관계 외의 어떤 관계도 없다고 부정한다. 랠스턴이 유아들은 "정해진 수단인 세례를 통해" 거듭난다고 주장하자(244쪽), 캠벨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244쪽).

> 잘 말씀하셨소. 세례가 교회 안의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지정된 수단이라니!! 세례가 유아의 중생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니!!!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여, 새뮤얼 랠스턴 목사와 악수하시오.…

따라서 1821년 말까지 캠벨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그대로였다. 침수세례의 목적에 관한 그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개혁주의적이었다. 당시 침례교 형제들의 견해와 거의 또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 캠벨 자신도 다른 주장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침례교 독자들도 그가 다른 주장을 한다고 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논쟁과 그 결과를 두고 그를 칭찬했다.

### 2. 에렛(Errett)의 소책자를 읽음

토머스 캠벨은 1816년 피츠버그에서 아카데미의 교사로 일하는 한편 독립교회 원리에 기초한 작은 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가 레드스톤 협의회에서 가입을 거절당한 교회였다. 그 교인 중 로버트 리처드슨(Robert Richardson)은 한때 토머스 캠벨의 학생이었고, 훗날 알렉산더의 사위가 되었다. 캠벨 부자는 이 교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때문에 피츠버그를 자주 방문했다.

그러나 피츠버그에는 독립교회 원리에 기초한 다른 회중도 있었다. 이 교회는 그곳 아카데미의 교장이기도 했던 조지 포레스터(George Forrester)가 세웠다. 로버트 리처드슨은 이 아카데미에도 다녔다. 포레스터는 할데인 형제의 추종자였다. 그는 버펄로 학교에서 가끔 강의했으나 1820년 여름 익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회중 지도자와 아카데미 교사로서 그를 대신한 사람은 월터 스콧(Walter Scott)이었다. 스콧의 지도 아래 이 회중은 캠벨 부자의 도움으로 1823년 다른 독립교회와 마침내 연합하게 된다.

스콧은 1819년 스코틀랜드 장로교인(연합파)으로 피츠버그에 이주했다. 포레스터를 만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침수세례를 받았고, 할데인(Haldane), 글래스(Glas), 샌더먼(Sandeman), 카슨(Carson)의 저술을 읽기 시작했다. 이 저자들의 글을 깊이 받아들인 스콧은 1821-1822년 겨울 캠벨을 만날 무렵 그와 정신과 생각이 완전히 같았다. 두 사람은 포레스터가 살아 있고 스콧이 아직 장로교인이던 1820년에도 만난 적이 있지만,[13] 첫 번째 중요한 만남은 알렉산더가 피츠버그를 방문한 1821-1822년 겨울에 이루어졌다. 이때 두 사람은 죄 사함과 관련된 침례의 의미를 처음 논의했다.[14] 1838년 캠벨은 워커와의 논쟁을 출판할 준비를 하던 때 이 주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아직

> 그리스도교 침례의 특별한 의미에 생각을 집중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 논쟁 중에, 또는 출판을 위해 옮겨 적는 동안, 침례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죄 사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상이 그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러나 다른 탐구에 너무 몰두해 있었으므로 추후 검토할 사항으로 남겨 두었다.[15]

---

[13] 통상적인 "첫 만남"은 대개 1821-1822년이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Forrester가 아직 살아 있던 1820년에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Campbell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MH 19 [1848] 552). "1820년 어느 때 나는 Walter Scott 형제를 처음 소개받았다. 그는 얼마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왔으며, 당시 장로교인으로서 Pittsburg의 Forrester 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Forrester는 스코틀랜드 Paisley 출신의 Haldane파 신자였다." Scott도 - *Evangelist* (1838) 268에서 Alexander Campbell을 처음 알게 된 것이 "18년 전"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1820년의 만남은 Forrester가 살아 있을 때 이루어진 우연한 만남이었다. 그러나 1821-1822년의 만남은 두 사람이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서로 논의한 최초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

[14] Dwight E. Stevenson, *Walter Scott: Voice of the Golden Oracle, A Biography*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n.d.), 37-39 and William Baxter, *Life of Walter Scott with Sketches of his Fellow-Laborers, William Hayden, Adamson Bentley, John Henry, and Others* (Nashville: Gospel Advocate Co., n.d.), 64-68.

[15] MH 19 (1848) 467. *저자(JMH)는 이 15번 각주에서 1838년을 1848으로 오기함.

분명히 이 주제에 대한 캠벨의 생각은 워커와의 논쟁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거기에 표현된 견해는 훗날 그가 침례의 성경적 의미라고 결론짓게 되는 것과 정반대였다.

알렉산더 캠벨과 월터 스콧 모두의 관심을 침례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돌린 단 하나의 자료는 뉴욕시의 스코틀랜드계 침례교인 헨리 에렛(Henry Errett)*이 쓴 소책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1820년에 쓰였으나 먼저 스콧의 손에 들어간 것은 1821년 초였다. 스콧은 이 소책자에 매우 고무되어 그해 뉴욕시에서 석 달 동안 이 스코틀랜드계 침례교회의 실천을 연구했다. 교회 자체에는 실망했지만 소책자가 남긴 인상은 침례의 목적을 더 연구하도록 그를 자극했다. 또한 1821년 초가을 로버트 포레스터(Robert Forrester)* 부인은 존 테이트(John Tate)를 통해 이 소책자 한 부를 캠벨에게 보냈다. 스콧과 마찬가지로 캠벨도 에렛의 이 소책자에서 침례의 목적에 관한 첫 인상을 얻었다.[16]

이 소책자는 접근 방식이 직접적이고 단순하다. 처음 몇 쪽은 여러 신약 본문을 인용한 것뿐이다(마가복음 1:4-5, 마태복음 3:7, 요한복음 3:5, 마가복음 16:16, 사도행전 2:38, 22:16, 로마서 6:2-11, 갈라디아서 3:26-28, 에베소서 5:25, 27, 4:4-6, 골로새서 2:12, 13, 디도서 3:5-6, 베드로전서 3:21 포함). 에렛은 이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침례가 "구원", "죄 사함" 등과 "연결"되어 있다고 때때로 언급한다.[17] 그는 이 본문들의 개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이 여러 구절을 통해 우리는 처음에 그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침례를 어떻게 보았는지 배울 수 있다. 침례를 단지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해 온 사람은 누구든 이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으면, 거기서 침례에 부여되는 듯한 놀라운 능력과 성격, 효과와 용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구절에서

---

* 헨리 에렛(Henry Errett)은 『*Christian Standard*』의 창립을 주도하고 초대 편집장을 맡았던 스톤-캠벨운동의 목회자, 교육자, 언론인, 선교운동 지도자 아이작 에렛(Isaac Errett, 1820-1888)의 부친임.

* 여기서 로버트 포레스터는 앞서 언급된 조지 포레스터의 오기일 가능성이 있음. 이 오기는 로버트 드와이트 E. 스티븐슨의 *Walter Scott: Voice of the Golden Oracle* 에서 비롯되었음. 각주 14 번 참조. 조지 포레스터 익사 직후 스콧이 미망인과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음 (Richardson 의 *Memoirs* 제 1 권 506-507 쪽).

[16] Scott은 *Evangelist* (1838) 283ff.에서 이 소책자의 짧은 발췌문과 함께 이 이야기를 전한다. Baxter, pp. 46ff.에도 이 소책자의 발췌문이 실려 있다. Stevenson, pp. 38-39. 흥미롭게도 Richardson은 자신의 *Memoirs*에서 이 특정 소책자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17] Baxter, pp. 47-51.

> 침례에 대해 사용된 언어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침례로 죄 사함을 얻고, 침례 안에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며, 침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구원이 침례와 연결되며, 침례로 죄를 씻고, 침례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며, 침례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며, 침례로 거듭나고, 침례로 선한 양심의 응답을 얻는다는 뜻이 될 것이다. 우리 앞의 모든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모든 것이 침례에 귀속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자적 해석이 초기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침례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믿게 했다.[18]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잘못이다. 에렛은 이 구절들을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는 이 침례 본문들의 "문자적" 이해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문자적" 이해가 "끔찍한 화체설"을 낳은 것에 비유한다. 그는 "문자적" 이해가 구원을 위해 침례가 필수라는 뜻이 된다는 점을 비판한다. 그러한 관념이 "권위적 근거가 없는" 유아세례 관습을 낳았다는 것이다.[19]

에렛은 침례를 "오직 하나의 의식으로만"[20], 또는 위에서 인용했듯 "단지 하나의 의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침례의 필수성을 도출하는 이 구절들의 "문자적" 이해와, 침례를 교회의 단순한 의식으로 치부하는 태도 사이 어딘가에 침례의 의미를 이해하는 중간 길, 곧 비아 미디아(via media)가 있다. 에렛은 말뿐 아니라 행위로도 신앙을 "고백"한다는 "신앙고백"의 개념에서 그 중간 길을 찾았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로 고백해야 하듯이, 행위로도 "침례 안에서" 자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고백해야 한다. 따라서 신자들은 침례에서 "자신들의 죄가 씻겼음을 고백하고… 위로부터 태어났음을 고백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졌음을 고백했다…"[21]. 에렛은 침례라는 행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앙고백을 제자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행위로 본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고백의 중요한 부분, 다시 말해 그 신앙고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여겨져야 한다.[22] 에렛은 백스터가 제공한 발췌문의 끝에서 제자들 사이의 교제를 위해 이 침수세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숙고해 볼 때 이러한 용도와 목적이 하나의 침례에 속한다면,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이 이제 얼마나 제자로 알려지고, 인정되고,

---

[18] Baxter, p. 51.

[19] Baxter, p. 51.

[20] Baxter, p. 52.

[21] Baxter, p. 52.

[22] Baxter, p. 52.

>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23]

에렛의 소책자는 스코틀랜드계 침례교 운동의 역사적 맥락에 놓으면 쉽게 이해된다. 그것은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을 가시적 교회의 교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증이다. 침례가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것은 바로 그 결론을 부정한다. 더 나아가 침수세례 안에서 죄 사함을 얻는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에렛은 그것을 자신이 반대하는 "문자적" 해석이라고 이해한다. 오히려 그의 요점은 간단하다. 그리스도교 신앙고백에는 침수세례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용어의 충만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 따라서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말뿐 아니라 행위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기에 침수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침수세례를 성찬 교제의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에렛의 소책자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의 문제를 놓고 분열되어 있던 스코틀랜드계 침례교 집단의 배경과 잘 맞는다. 침수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침수세례 받은 사람들과의 성찬 교제에 초대해야 하는가? 에렛의 소책자는 침례를 구원의 필수 요소나 죄 사함을 받는 시점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질문에는 부정적으로 답한다. 에렛이 침례와 죄 사함의 "연결"을 강조한 것은 침례가 단순한 의식이나 하나님의 명령 이상의 것이며, 이 명령에는 특별한 함의가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그 함의는 구원 자체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고백이다. 따라서 침례는 기도나 노래 등의 다른 의식들과 같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인정받는" 의식으로 보아야 한다.

에렛의 소책자는 캠벨과 스콧에게 바로 이 질문을 제기하고, 침수세례 자체가 지닌 "신앙고백적" 성격을 깊이 인식하게 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에렛이 "문자적" 이해를 일축한 데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캠벨이나 스콧이 "문자적" 이해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럼에도 캠벨의 다음 논쟁에서는 소책자와 이후 스콧과의 토론이 미친 영향이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 3. 캠벨-맥칼라 논쟁

*a. 논쟁의 배경.* 워커 논쟁 말미에 캠벨은 유아에게 물을 뿌리는 문제에 대해 평판이

---

[23] Baxter, p. 53.

좋은 어떤 유아세례파 목사와도 논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도전했다.[24] 장로교인들이 워커에게 대체로 불만을 품고 있었으므로 누군가 이 도전에 응하리라는 것은 확실했다. 윌리엄 L. 맥칼라(William L. Maccalla) 목사가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캠벨은 1823년 10월 켄터키주 워싱턴에서 맥칼라를 만나기로 동의했다. 논쟁은 10월 15일 시작되어 22일까지 이어졌다.

1823년 5월 17일자로 맥칼라가 보낸 첫 편지를 받은 뒤, 캠벨은 다시 이 주제를 논쟁하기 "전에 침례의 참된 의미를 확정하기로 결심했다". 몇 달 동안 토머스와 알렉산더 캠벨은 이 주제를 상세히 논의했다. 그해 여름 7월이나 8월에 스콧이 처음으로 알렉산더가 사는 베다니를 방문했고, 그들은 논의를 더 이어 갔다. 세 사람은 캠벨이 논쟁에서 침례의 목적에 기초한 논증을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1838년 이 논쟁을 돌아보며 캠벨은 침례의 목적에 기초한 논증이 "전체 논의의 핵심 목표이자 목적"이었다고 썼다. 그러나 당시 그 견해는 세 사람 모두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고 인정했다.[25]

논쟁 직전 몇 달 동안 캠벨은 첫 정기간행물인 『크리스천 뱁티스트』(*Christian Baptist*)를 시작했다.[26] 발간 취지문은 1823년 봄에 발표되었고 창간호는 1823년 7월 4일 인쇄되었다. 캠벨이 이 간행물을 내놓은 목적은 "교파주의가 폐지되고, 모든 이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적 교회가 세워진 하나의 토대 위에 일치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침례교인들과 유아세례파를 여기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 목적이다."[27] 신생 미국 환원운동의 일원이 침례와 죄 사함의 연결을 처음 인쇄물에서 언급한 것은 1823년 9월 1일자 『크리스천 뱁티스트』 제2호였다. 토머스 캠벨은 「복음의 합당하고 일차적인 의도와 그 합당하고 즉각적인 효과에 관한 논고」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례(세례)의 의미에 관한 복음의 증언이 이와 같았으므로, 그것을 믿고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

[24] Campbell, *Debate on Christian Baptism*, p. 141.

[25] MH 9 (1838) 468.

[26] Campbell은 학술지의 이름을 단순히 *The Christian*으로 하고 싶어 했지만, 그를 설득하여 제목에 *Baptist*를 덧붙이게 한 사람은 Walter Scott이었다. 그들은 이를 통해 침례교인들이 자신들의 개혁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랐다. Baxter, p. 73과 Richardson, *Memoirs*, II, pp. 49-50 참조.

[27] Richardson, *Memoirs*, II, p. 135의 인용을 따름.

> 용서받고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복음의 다른 어떤 조항을 믿는 것만큼이나 확신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의미하는 그 침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는가? 만약 그가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자신의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에 관하여 그 의식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시작된 바로 처음부터, 복음의 증언이 참되다는 확신을 가지고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자기 죄의 사함에 대하여도 그 증언 자체의 진실성을 확신하는 것과 꼭 같은 정도로 확신하고 있었다.[28]

캠벨의 글은 『크리스천 뱁티스트』에서 별다른 논란을 일으키지 않은 듯하다. 간행물이 너무 새로워 대체로 주목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토머스 캠벨 역시 에렛의 소책자와 이후 아들 및 월터 스콧과의 토론에서 무언가를 배운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 글이 어느 정도 성숙한 견해를 나타내는지는 불분명하다. 실제로 에렛의 견해를 발전시키기보다는 그의 소책자를 되풀이하는 듯하다. 캠벨은 죄 사함을 받는 시점보다 온전한 확신과 보증을 강조한다. 이 글은 침례와 죄 사함의 연결을 처음 인쇄물로 밝힌 글이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에렛의 소책자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몇 년 뒤 서부 보류지 전역에서 전파될 입장과 동일하지도 않다.

논쟁 한 달 전 알렉산더 캠벨은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의 연례 회의에 참석하려고 피츠버그에 갔다. 더 이상 협의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참관인으로 참석했다.[29] 그동안

---

[28] CB 1 (1823) 35. 이 글의 저자는 "T.W."로 표시되어 있다. 나중에 "T.W."가 Thomas Campbell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S. Hayden, *A History of the Disciples on the Western Reserve* [Cincinnati: Chase & Hall, Publishers, 1875; 재판 Indianapolis, IN: Religious Book Service, n.d.], 78 참조). Richardson에 따르면 이 글은 원래 『크리스천 뱁티스트』지 창간호에 실릴 예정이었으나 지면 부족으로 빠졌다. *Memoirs*, II, p. 83 참조. 내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Thomas Campbell이 의도한 바는 Errett의 소책자가 말한 것 이상은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같은 글의 뒷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쓴다. "…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복음의 증언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비록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한 가지는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곧 그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즉 침례 받은 모든 신자에게 죄 사함과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동일한 신앙고백을 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으로 여겼으며, 또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기록 어디에서도 의심에 사로잡히거나 낙심한 그리스도인의 사례를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한다…." (CB 1 (1823) 36-37).

[29] Campbell은 1816년 8월 30일[*이 날은 금요일로써 연례회 시작일이었으며, 캠벨이 설교한 날은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일 주일 오전이었다.]에 전한 「율법에 관한 설교」(Sermon on the Law) 때문에 이단 혐의로 심리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맥칼라(Maccalla)와의 논쟁 직전에 출교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Campbell은 자신이 속해 있던 브러시 런 교회(Brush Run Church)의 회원 자격을 웰스버그 교회(Wellsburg Church, 버지니아주 웰스버그)로 옮겼다. 브러시 런 교회는 레드스톤 협의회(Redstone Association)에 소속된 교회였다. 이후 웰스버그

그는 논쟁 전에 마지막으로 스콧과 아버지를 만났다. 침례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논쟁의 주요 논거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지녔다.

*b. 침례의 목적에 근거한 캠벨의 논증.* 캠벨이 침례의 목적을 근거로 유아세례에 반대하는 논증을 제기한 것은 둘째 날 첫 연설이 끝날 무렵에 이르러서였다. 그는 논증을 충분히 펼칠 시간도 없이 간단히 소개만 했다(100쪽).[30] 그러나 전체 논증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놓을 기회는 있었다. 그는 침례가 기도, 노래, 찬양 등의 다른 의식과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침례는 "단 한 번만" 시행되며 그 특별한 중요성은 여러 성경 구절이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이어서 캠벨은 에렛이 인용했던 것과 같은 구절들 중 일부를 인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용문들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나는 이 증언들의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통해 침례가 엄청난 의미와 영광스러운 목적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100쪽). 이는 에렛이 소책자에서 말한 것 이상이 아니며, 이 시점에서 그에게 의존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맥칼라는 이 단계에서 캠벨의 논증을 무시했는데,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캠벨은 세 번째 연설에서 다시 돌아와 이를 충분히 규정했다(114-119쪽). 이것이 논쟁에서 침례의 목적에 관해 그가 제시한 가장 충실한 설명이다. 실제로 캠벨은 침례의 목적을 근거로 유아세례에 반대하는 두 가지 논점을 제기했다. 첫째는 죄 사함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데 근거한다. 용서에 믿음이 필요하고 침례가 죄 사함과 연결된다면, "믿음 없는 침례는 무의미한 의식"이다. 그 표징이 가리키는 실재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 표징을 베풀 수 있겠는가(117쪽)? 요컨대 "침례의 성격과 목적은 신자들에게만 적합하다"(126쪽). 둘째는 이렇다. 침례가 "죄들에 대한 사함"(복수형에 주목)과 어떤 연결을 가진다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거나 오직 하나의 "죄"(단수형에 주목하며, "원죄의 죄책" 또는 "원죄"를 뜻함)만 있는 유아에게 왜 세례를 베푸는가? 캠벨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117쪽).

---

교회는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Mahoning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을 청원하였고, 그 청원은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Campbell은 이제 다른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레드스톤 협의회는 그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들의 상세한 경위는 MH 19 (1848) 553-557 참조.

[30] *Alexander Campbell* and W. L. Maccalla, *A Public Debate on Christian Baptism Between the Rev. W. L. Maccalla, a Presbyterian Teacher and Alexander Campbell to which is added An Essay on the Christian Religion by Alexander Campbell* (London: Simpkin and Marshall, 1842; 재판 Kansas City: Old Paths Book Club, n.d.). 이 논쟁에서 가져온 모든 인용은 본문에 표시한다. 1년 안에 거의 6,000부가 판매되었다는 사실은 이 논쟁의 인기를 보여준다 (CB 2 [1824] 40 참조).

> 이 주제에서 우리의 논증은, 침례가 신자에게 그의 모든 죄에 대한 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사함이 되도록 정해졌으므로, 유아에게 이를 베푸는 것은 이 의식의 본질과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오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고, 칼뱅주의자들이 말하듯 단 하나인 "원죄"만 있는 유아가 왜 "죄들"의 사함을 위해 세례 받아야 하는가!

물론 이 논증들의 전제는 침례의 목적이 죄 사함과 어떤 연결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캠벨이 입증해야 할 핵심이었다. 그는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22:16에서 침례를 죄 씻음과 연결했다면 자신도 그렇게 한다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믿었듯 캠벨도 그를 믿었다. 그러나 캠벨이 이해한 아나니아의 말은 다음과 같았다(116쪽).

> 그가 침례 받았을 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죄가 이제 씻겼다고 믿었음이 틀림없다. 그의 죄가 이미 모든 의미에서 씻겼다면 아나니아의 말은 침례 전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잘못 이해하도록 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것조차 은유적 표현이다. 그 피의 효력은 그분 자신의 존엄성과 아버지의 지정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실제로 깨끗하게 한다. "죄 사함을 위하여" 특별히 침례를 정하심으로 그 사실의 공식적 증거와 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그러므로 침례의 물은 우리의 죄를 공식적으로 씻는다. 바울의 죄는 그가 믿었을 때 실제로 용서되었지만, 침례의 물에서 씻기까지 그 사실에 대한 엄숙한 약속도, 공식적 사면도, 공식적 죄 씻음도 없었다.
>
>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 침례는 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죄 사함, 곧 정결하게 함이다. 신자는 침례 받기까지 자신의 죄가 공식적으로 씻기거나 사해지지 않는다. 물은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것 외에는 아무 효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그것을 충분하게 하셨다. 이 관점에서 침례의 가치와 중요성이 드러난다.

이 긴 인용문은 중요하다. 맥칼라 논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충실한 진술이므로, 그 논쟁에서 고립되어 있거나 목적에 기초한 논증과 연결되지 않은 듯 보이는 캠벨의 다른 진술을 해석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이 부분은 『크리스천 뱁티스트』에 실린 토머스 캠벨의 글을 해석하는 도구로도 쓰여야 한다. 분명히 이 시점까지 캠벨의 저술에서 얻을 수 있는 침례의 목적에 관한 가장 명료한 진술이다.

우리의 탐구에서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사람은 언제 죄 사함을 받거나 얻는가? 캠벨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답한다. "실제적" 의미와 "공식적" 또는 "개인적" 의미가 있다. "실제적" 의미는 죄 사함을 실제로 받는 시점에 해당한다. 캠벨은 "바울의 죄는 그가 믿었을 때 실제로 용서되었다"고 명시했으며, 이는 침수세례 전이었다. 그리스도의 피가 침례의 물 없이 이를 이루었다. 그러나 침례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죄가 실제로, 비록 앞서 사해졌다는 "공식적 약속"(118쪽)을 주심으로 이 실제적 사함을 개인적으로 확신시켜 주는 시점이었다. 맥칼라 논쟁의

캠벨에 따르면 아무도 실제적 죄 사함을 받으려고 침례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공식적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침례 받는다(118쪽).

때로 캠벨은 "공식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이 "공식적 사함"을 언급한다. 예컨대 두 번째 연설에서 그는 "믿고 침례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 사함이 주어진다"고 명시한다(110쪽). 그러나 뒤의 진술을 보면 그가 침례를 실제적 죄 사함을 받는 시점이라는 뜻으로 말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실제적 사함은 믿을 때 받는다. 오히려 침례는 공식적 죄 사함만을 준다. 따라서 믿음과 침례는 모두 죄 사함을 주지만, 믿음은 실제적 의미에서, 침례는 공식적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

*c. 침례의 목적에 관한 캠벨과 침례교인들의 견해.* 캠벨은 믿을 때 "실제로 용서받는다"고 믿었는데, 그렇다면 당시 침례교인들의 견해와 무엇이 다른가? 캠벨은 자신과 침례교 형제들의 견해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스스로 옛 입장에서 새 입장으로 이동했다고 인식했다.[31] 많은 침례교인이 참석한 맥칼라 논쟁은 자신의 입장을 정규 침례교인들과 구별할 기회였고, 그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둘째 날 네 번째 연설에서 캠벨은 특별히 침례교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125쪽).

> 나는 침례교 형제들뿐 아니라 유아세례파 형제들도 이 점에서 권면 받을 필요가 있다고 겸손히 생각한다. 여러분 중 일부는 침례를 전부로 삼는다거나 구원에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형제들이 말할까 봐, 침례의 이 위대한 의미를 주장하거나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의식에 즉각 순종하도록 촉구하는 데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구원에 필수적인 것으로 삼는 것이 없다고 말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생에서의 공식적 용서와 땅에 있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침례를 필수로 삼으셨다고 말하라. 이생에서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약속,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실제 용서와 모든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을 받는 것이 그들의 행복에 필수적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며, 그 확신이 바로 침례라고 말하라. 제자들에게 서둘러 일어나 침례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죄를 씻으라고 말하라.

침례교인들과 달리 캠벨은 침례의 공식적 의미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침례가 신자의 죄가 이미 사해졌음을 알려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개념은 침례교 형제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이를 실천하기 시작하라고 촉구한다. 침례의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은 "공식적" 죄 사함과의 연결에서 나온다. 어떤 "침례 받지 않은 신자도 매우 중요한 의미에서는 자신의 죄가 씻기지 않은 상태"이다(124-125쪽). 복음 사역자들은 신자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공식적으로

---

[31] MH 9 (1838) 468. Campbell은 Maccalla Debate를 준비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세례의 목적에 관한 이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확신시키는 수단으로 침례를 사용해야 한다. 이 사건은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캠벨의 진술에는 두 가지 맥락이 있다. 첫째, 침례교인들은 침례를 하나님께 수행해야 할 또 하나의 도덕적 의무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순종해야 할 명령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캠벨은 앞서 두 번째 연설에서 이를 비판했다(117-118쪽).

> 우리는 일부 침례교인이 이 의미심장한 의식을 도덕적 모범이나 도덕적 계율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은 정직과 침례를 똑같은 도덕적 의무로 취급한다. 다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침례 받았다"고 말한다. 나는 여러분이 같은 이유로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침례와 정직을 똑같은 도덕적 의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롭고 잘 가르침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공식적 사함을 얻기 위해 침례 받는다.

둘째, 캠벨은 부흥운동식 전도와 회개의 자리(mourning bench)에 익숙한 칼뱅주의 청중에게 말하고 있다. 당시에는 죄인에게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응답을 기다리라고 했다. 기대한 응답은 신자에게 구원을 확신시켜 주는 성령의 체험이었다. 캠벨은 신자에게 성령의 체험을 기다리게 하는 대신 침례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거기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하게 해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주장한다. 회개의 자리에서 얻는 성령 체험이 아니라 침례가 그 신자의 개인적 사면이나 용서에 대한 "하나님 편의 공식적 약속"이다(118쪽).

*d. 캠벨과 에렛: 차이가 있는가?* 캠벨은 에렛처럼 자신이 어떤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보았다. 한편으로 두 사람 모두 침례가 실제적 죄 사함을 받는 시점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캠벨은 바울에 관해 이를 명시했고, 에렛은 그러한 이해를 지나치게 "문자적"이라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두 사람 모두 침례를 단순한 의식이나 하나님의 여러 명령 중 하나 이상으로 여긴다. 특히 가시적 교회, 곧 땅 위의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제도로 본다. 침례의 목적은 가시적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다. 에렛은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제자로 알려지거나 인정되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했다.[32] 캠벨도 일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며 맥칼라 논쟁에서 같은 요점을 말한다(170-171쪽).

> …침례는 교회 구성원을 위해 고안된 적도, 교회 구성원에게 시행하라고 명령된 적도 없다. 물로 태어나지 않으면 교회의 정해진 질서에 따라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신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침례 받은 적은 없다. 침례 받을 때 교회에 더해졌다는 기록은 있지만, 교회의

[32] Baxter, p. 53.

구성원으로서 침례 받았다는 기록은 단 한 번도 없다.[33]

다른 한편 두 사람 모두 침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지만, 에렛은 침례의 "신앙고백적" 성격을 말했다. 침례는 신자의 신앙고백이며, 입으로 하는 공식적 신앙고백에 더하여 행위로 하는 공식적 신앙고백이다. 따라서 에렛은 침례의 특별한 의미를 신자의 행위에 연결했다.

그러나 캠벨은 침례의 특별한 의미를 하나님의 행위에 연결했다. 캠벨에 따르면 침례는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것은 신자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다. 하나님은 침례 의식 안에서 신자에게 용서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공식적 약속을 주신다. 침례는 신자에게 구원을 확신시켜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서 캠벨이 여러 곳에서 에렛을 명백히 활용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캠벨은 침례 안의 신적 역사를 강조하고 에렛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다. 이 차이는 심오하며, 결국 캠벨의 침례 사상이 발전하는 동력이 된다.

### 4. 침례 사상의 발전 분석

이 절에서는 1820년 워커 논쟁부터 1823년 맥칼라 논쟁까지 캠벨의 침례 신학을 살펴보았다. 이 기간에 침례의 목적에 대한 그의 견해가 달라졌다는 사실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1820년 캠벨은 어떤 외적 요소도 구원과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강한 츠빙글리적 침례관을 지녔다. 이는 특히 워커 논쟁의 「부록」에 잘 드러난다.

그러나 1821년 가을까지 그의 견해는 다소 완화되기 시작했다. 그해 가을 랠스턴을 반박하기 위해 쓴 「비판」에는 침례의 목적에 대한 강한 강조가 없다. 그는 그 글을 쓰기 전이나 쓰는 동안 에렛의 소책자를 이미 읽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침례의 목적 문제를 숙고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

[33] Campbell은 여기서 "교회"를 가시적 교회, 곧 지상의 교회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여기서 그는 보편적이고 비가시적인 교회나 하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그의 뜻은 Errett의 뜻과 같다. Wellsburg 교회가 Mahoning Baptist Association에 가입하기 위해 1823년 8월 제출한 진술은 Campbell의 관점을 표현한다 (그가 이 교회의 장로였으므로 이는 우연이 아니다; CB 2 [1824] 37-38 참조). 흥미롭게도 이 진술은 앞서 제시한 Maccalla Debate의 해석과 정확히 일치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세상을 이기며, 그 안에 영생이 거한다. 이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성령의 새롭게 하심뿐 아니라 물의 씻음도 받아야 한다"(Hayden, p. 32). 이 인용에서 사람은 물로 태어나기 전에 성령으로 태어나며, 물로 태어난 사람만 가시적 교회에 받아들여진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 문제가 제기된 것은 스콧 및 아버지 토머스 캠벨과의 만남에서였다. 모두가 에렛의 소책자를 읽은 뒤였던 것으로 보이며, 1821-1822년 겨울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간헐적인 만남만으로는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시 연구할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1823년 5월 맥칼라가 도전을 받아들인 뒤 캠벨은 침례의 목적 연구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입생의 열정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한다.[34] 아버지와 토론하고, 이어 자신과 토머스 캠벨, 월터 스콧이 함께 논의한 뒤 침례의 목적에 대한 확고한 결론에 도달했다. 유아세례파뿐 아니라 침례교인들에게도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는, 침례가 신자의 죄가 사해졌다는 하나님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유아세례에 반대하는 논증을 제시했다. 이 입장은 그 자신의 인식에서나 실제로나 워커 논쟁 당시와 그 이후의 태도를 뒤집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직접적으로 세 가지에 기인한다. (1) 에렛의 소책자, (2) 비슷한 결론에 이르던 아버지 및 스콧과의 토론, (3) 이 관점에서 자신이 새롭게 수행한 신약 연구이다.

그러나 캠벨의 입장은 맥칼라 논쟁 뒤에도 고정되지 않았다. 그는 맥칼라 논쟁에서부터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전파했다고 자주 주장했지만, 그 논쟁에서 말한 방식과 의미는 이후의 것과 같지 않았다. 특히 바울의 죄는 믿었을 때 "실제로 용서"되었고 침례 받을 때는 오직 "공식적으로" 사해졌다는 입장에서 벗어났다. 1828년에 이르러 캠벨은 침례가 "공식적 사함"의 시점일 뿐 아니라 실제적 죄 사함의 시점이기도 하다고 입장을 수정했다. 이는 『크리스천 뱁티스트』의 두 진술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단순한 의식을 구원자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침수세례 안에서의 죄 사함을 놓치지도 않는다. 우리는 용서에 필수적인 것으로 믿음과 침수세례를 연결한다. 그러므로 옛말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를 침수세례에도 적용한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며, 그분이 우리의 행위인 침수세례를 지정하여 그것을 통해,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입으려고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침수세례 받을 때 실제적인 죄 사함을 얻는다.[35]
>
>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이것도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침수세례 받는 순간 공식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신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수세례 받는 순간 침수세례 안에서 그리스도를 입는 것만큼 실제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

[34] MH 9 (1838) 468.

[35] CB 5 (1828) 222.

명백하다.[36]

---

[36] CB 5 (1828) 256.

A. B. Jones, *The Spiritual Side of Our Plea* (St. Louis: Christian Publishing Co., 1901), pp. 70-192는 Campbell이 세례와 관련하여 "실질적" 죄 사함과 "형식적" 죄 사함의 구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고 매우 상세히 주장한다. 그는 Campbell이 Maccalla Debate에 나타난 입장을 항상 유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그가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Campbell을 오해했다고 생각한다. (1) Jones는 "개인적 죄 사함"을 "실질적 죄 사함"과 동일시하지만, Campbell은 침례가 개인이 자신의 용서를 개인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시점이므로 개인적 죄 사함은 침례의 시점에 주어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1823년의 Campbell에게 개인적 죄 사함은 형식적 죄 사함과 같다. (2) Jones는 Campbell이 "실제적" 죄 사함과 "실질적" 죄 사함을 동의어로 사용했고, 1828년에 실제적인 죄 사함이 세례 때 일어난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3) Jones의 Campbell 해석은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Campbell의 진술을 혼동한다. Campbell은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을 확신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 심지어 특정한 경우에는 그 개연성까지도 부정하지 않는다. Jones의 해석이 옳다면, Campbell은 침례 받지 않은 신자가 이미 실질적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4) Jones는 신자의 마음의 의도에 관한 Campbell의 생각, 곧 "믿음을 통해 미리 기대하는 죄 사함"을 잘못 읽는 오류를 범한다. Rice와의 논쟁에서 Campbell은 "미리 기대함"을 통해 용서받는 것을 말했지만, "미리 기대함"이 "실제적"인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Campbell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영혼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일 때, 그는 미리 기대하는 가운데 그 복을 받았다고 나는 믿는다...그는 자기 믿음의 목적, 곧 죄에서 실제로 해방되는 것을 미리 기대한다" (Alexander Campbell and N. L. Rice, *A Debate Between Rev. A. Campbell and Rev. N. L. Rice, on the Action, Subject, Design and Administrator of Christian Baptism* [Lexington, KY: A. T. Skillman & Son, 1844], p. 522). "실제적 해방"은 세례의 순간, 바로 그때 일어난다. Jones는 Campbell의 모든 저술을 Maccalla Debate의 관점에서 읽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했다. 오히려 그는 1823년의 Campbell과 1830년대, 심지어 1828년의 Campbell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오류는 Disciples의 저술에서 여전히 흔하다. Stephen J. England, "Alexander Campbell's on Baptism in the Light of the Ecumenical Movement," 수록: *The Sage of Bethany: A Pioneer in Broadcloth*, 편집 Perry E. Gresham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mpany, 1988), pp. 95-116, 특히 pp. 106-107, 114-116 참조.

장로교 목사 N. L. Rice는 1823년의 Campbell과 이후의 Campbell 사이의 차이를 지적하며 그를 추궁했다. 그는 Campbell이 바울은 믿었을 때 "*실질적으로* 용서받았다"고 주장한 Maccalla Debate를 인용한 뒤, 내시가 "침례 행위 중에 실제로 용서받았다"고 한 - *Christian Baptist* (5:181)를 인용했다 (*Campbell-Rice Debate*, p. 524). Rice는 "이 모순되는 견해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겠다"고 논평했다 (p. 524). Rice가 그 발언에서 Maccalla Debate와 *Christian Baptist*의 구절들을 인용한 뒤 제기한 이 구체적인 모순의 비판에 Campbell은 답하지 않았다.

1851년 Campbell은 세례에 관한 자신의 저술들을 모으고 일부 새로운 내용을 더한 개요서를 출판했다 (*Christian Baptism with its Antecedents and Consequents* [재판; Nashville: Gospel Advocate, 1951]. 이 책은 Maccalla Debate와 구별되는 입장을 분명히

이 진술들은 맥칼라 논쟁에서 캠벨이 길게 설명한 내용과 더없이 강한 대조를 이룬다. 맥칼라 논쟁에서 그는 침례가 오직 "공식적" 죄 씻음이며 실제적 씻음은 침례 전 믿음의 시점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1828년 『크리스천 뱁티스트』에서는 "실제적" 씻음과 "공식적" 씻음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로 죄를 씻고 침례의 물이 공식적으로 씻지만 두 행위는 결합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씻기는 때에 동시에 실제로 씻기며, 공식적 씻음 없이 실제적 씻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신자는 없다. 1823년과 1828년 사이 캠벨의 침례 신학이 변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823년부터 1828년까지의 5년 동안 캠벨은 침례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심화했다. 1828년의 성숙한 견해가 1827년 말 환원운동 안에서 시작된 폭발적 부흥과 맞물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제 침수세례의 목적에 대한 캠벨의 성숙한 이해를 살펴보겠다.

### C. 고대 복음의 정식화

#### 1. 1823-1827년의 『크리스천 뱁티스트』

*a. 그리스도인의 일치.* 알렉산더 캠벨은 1824년 4월 5일자 『크리스천 뱁티스트』에 「소망과 그리스도인 일치의 토대」라는 글을 썼다.[37] 그는 여기서 처음으로 이 간행물에서 침례 문제를 다루었다. 일치와 소망의 확신이라는 맥락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의 요점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이 하나의 사실을 믿고 그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하늘이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하는 전부이다"(177쪽). 그 하나의 사실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며, 하나의 제도는 침수세례다. "그러한 사람은 누구나 위의 증거에 근거하여 이 하나의 사실을 믿고 위에서 말한 제도에 순종하는 순간, 그 단어의 가장 충만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177쪽). 이것은 가시적 교회, 곧 땅 위의 교회에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것이 교파들 사이의 일치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캠벨의 요점은 침례의 목적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가시적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에 필요한

---

보여준다. Campbell은 세례의 세 가지 "후속 결과"로 양자 됨, 성화, 칭의를 제시한다 (pp. 220-254).

[37] CB 1 (1824) 176-178. 이 문단의 인용들은 이 글에서 가져왔으며, 해당 페이지 번호는 본문에 제시한다. 일치와 관련된 세례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William D. Carpe, "Baptismal Theology in the Disciples of Christ," *Lexington Theological Quarterly* 14.4 (1979): pp. 65-78 참조.

것들을 제시한다. 두 가지가 요구된다. 하나의 사실을 믿는 것과 하나의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캠벨은 맥칼라 논쟁에서 제시한 침례 이해를 넘어가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그 하나의 사실을 믿는 것이 "영혼의 구원에 충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을 동반한 "외적 침례 행위"는 교회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177쪽).

*b. 그리스도교 신앙.* 토머스 캠벨은 "T.W."라는 필명으로 1824년 10월과 11월의 『크리스천 뱁티스트』에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한 논고」라는 두 편의 글을 썼다.[38] 그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으로 나눈다. 내적 원리는 믿음이다. 외적 원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특정한 행위와 실천"(곧 "일반적으로 예배라고 부르는 것", 62쪽)이다. "그리스도교 예배에서 처음 제정된 행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이다"(62쪽). 여기서 캠벨은 "성부의 이름 안으로" 등의 표현에서 "안으로"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에이스(eis)'에 집중한다. '에이스'는 관계를 표현한다.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새롭고 복된 관계가, 이를 위해 하나님이 은혜롭게 제정하신 의식을 통해 신자에게 공개적으로 인정된다"(63쪽). 그러므로 침례는 "믿는 예배자가 믿음의 집과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되는 최초의 제정된 순종 행위"이다(62-63쪽).

캠벨은 맥칼라 논쟁에서 이미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에렛의 소책자의 견해를 재확인한다. 그러나 이제 믿음, 침례, 기도를 포함한 다른 모든 예배 행위 사이에 순서가 있어야 할 "필수적 필요성"을 본다(73쪽). 기도는 분명 침례 직후에 이어지는 예배 행위이지만, 침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도(또는 예배 일반)의 전제 조건이다. 캠벨은 사도행전 22:16에서 이 순서를 본다. 먼저 침례 받고 죄를 씻은 다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63쪽).

> 먼저 속죄의 피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다음으로 맑은 물로 몸을 씻어 몸과 혼과 영 전체의 거룩하게 됨을 선언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믿는 사람은 참된 마음과 믿음의 충만한 확신으로 가까이 나아가 거룩함의 아름다움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 먼저 복음을 믿고 순종한 뒤에야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캠벨은 여전히 믿음의 내적 행사가 마음에 피가 뿌려지는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침례 전에 정결해진 양심을 갖게 된다. 둘째, 침례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배의 전제

---

[38] CB 2 (1824) 61-65, 72-75. 이 문단의 모든 인용은 그 글에서 가져왔으며 본문에 표시한다.

조건이다. “이제야 비로소 믿는 죄인은 먼저 제단에서 뿌림을 받고 다음으로 물두멍에서 씻은 뒤, 자격을 갖추고 받아들여지는 예배자로서 두려움 없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63쪽). 이 진술 역시 가시적 교회와 교회의 일치를 추구한 캠벨 부자의 맥락에 놓아야 한다. 토머스에 따르면 가시적 교회는 침수세례 받은 신자들만을 “자격을 갖추고 받아들여지는” 예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입장의 중요성은 19세기 초 흔했던 “회개의 자리” 상황과 대조할 때 드러난다. 캠벨은 많은 이들이 “제단이나 물두멍을 직접 고려하지 않은 채, 지옥을 피하려고 구원의 수단으로 기도하도록 무분별하게 권유 받는다”고 비판한다(73쪽). 사도적 순서는 복음을 믿고 침례 받은 다음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 순서에 따르면 구원을 찾는 사람은 침수세례 받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반면 교파들은 회개의 자리에서 “그 대상자의 중생을 확인하기 위해 성령의 특별한 내적 역사에 근거한 내적 인상과 경험, 감정”을 찾는다(72쪽). 교파주의자가 그 사람의 “감정”(feelings)에 만족하면, “단지 명백한 명령에 대한 순종의 행위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위로서” 그에게 침례를 베푼다(72쪽). 이로써 침례는 신자의 죄가 사해졌다는 하나님의 공식적 약속이 아니라 “단순한 도덕적 의무의 무기력한 수준으로 가라앉는다”(72쪽).

따라서 캠벨 부자는 『크리스천 뱁티스트』에서 회심 과정 중 침례의 역할을 재평가하라고 촉구한다. 회개의 자리를 침례로 대체하라는 것이다. 회개의 자리에 나올 만큼 믿음이 있다면 침수세례 받을 만큼의 믿음도 있다. 믿음에 근거하여 침수세례 받는다면 죄가 사해졌다는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을 갖게 된다. 이것이 침례교인들을 향한 그들의 독특한 호소의 핵심이다. 아직 그들의 입장은 구원의 시점을 침수세례의 순간에 두지 않았다. 오히려 제단에서 이미 정결해진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기 위해, 구원의 공식적 선언을 받으러 물두멍에 오는 것이었다.

***c.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 1825년에는 침례에 대한 간단한 언급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39] 그러나 1826년 『크리스천 뱁티스트』에서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버지니아의 “R.B.S.”가 1825년 12월 6일자로 캠벨에게 편지를

[39] 편집자 Alexander Campbell이 세례를 언급한 유일한 대목은 CB 2 (1825) 225에 나온다. 그는 골로새서 2:12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이 표현을 통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세례에서 그들에게 표상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여기에는 1823년과 1824년의 이전 진술들로부터 관점이 바뀌었다고 시사하는 것이 전혀 없다. 반면 Theophilus는 CB 2 (1824) 102, 105에서 더 많은 것을 말했다.

써서 할데인 계열 공동체들에 "관용"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으며, 『크리스천 뱁티스트』의 지지자들도 그 계열로 분류했다.[40] 더 나아가 어느 회중이든 이 간행물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실행한다면, "현재의 침례교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 교파가 생겨났다"고 말하겠다고 했다.[41] 알렉산더 캠벨은 자신이 할데인 계열이라는 주장에 답한 뒤 "관용" 문제를 다룬다. 그는 할데인 계열이 버지니아 침례교인들보다 더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쓴다.

>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는 이 계열의 여러 회중이 버지니아의 침례교인들보다 훨씬 더 "관대하다"는 사실이다. 여러 회중이 관용을 근거로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주님의 식탁에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제임스 할데인(James Haldane)과 연결된 에든버러 회중과 알렉산더 카슨(Alexander Carson)과 연결된 터버모어(Tubermore) 회중, 곧 이 계열의 가장 두드러진 두 회중은 실제로 "관용"을 근거로 침례의 요구를 면제한다.… 그들은 유아세례파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면서도, 유아세례가 인간의 전통이라는 점을 납득하지 못한다면, 그가 원할 경우 이러한 약점(이해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를 형제로 그리스도인 회중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42]

흥미롭게도 캠벨은 이 점에서 할데인 계열에 동의하기도, 반대하기도 하는 듯하다. "R.B.S."에게 답하면서 그는 의견의 문제에서 "형제가 자신의 판단을 행사하도록 허용"할 용의가 있으며, 자신은 "이 원칙을 가능한 최대한까지 적용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가능한 경우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는 말한다.

> 어떤 남자나 여자나 아이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 주어지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확신한다고 선언하는 한, 다시 말해 예수가 메시아이며 인류의 구주라고 선언하는 한, 그리고 자신이 아는 바에 따라 모든 일에서 그분께 순종하려는 뜻을 보이는 한, 나는 그를 그리스도인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할 것이다.[43]

따라서 캠벨은 특정한 상황에서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는 그들을 주님의 식탁에 받아들이거나 가시적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다음 호인 1826년 5월 1일자 『크리스천 뱁티스트』에서 캠벨은 이와 관련된 몇몇 세부 사항을 꽤 확신하지 못한다고 인정한다.

---

[40] CB 3 (1826) 176-179.

[41] Ibid., p. 178.

[42] Ibid., pp. 182-183.

[43] Ibid., p. 183.

“한 독립 침례교인”(An Independent Baptist)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사람은 1826년 2월 11일자 편지에서, 침례교 전체가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벨이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따라서 침례교단 전체와 연합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지적했다.[44] 캠벨은 자신이 분리주의자가 아니라고 답했다(한때는 그랬지만[45]). 또한 교파 간 교제 개념을 두고 씨름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침례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유아세례파와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지만, 어느 쪽도 다른 쪽과 함께 주님의 식탁에 앉으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캠벨은 자신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내놓았다.

> 여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듯한 면이 있다. 신약이 침례를 공동 기도와 찬양보다 앞서는 것으로, 성찬에 앞서는 것만큼이나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한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나는 침례교인과 유아세례파가 각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같은 주님의 식탁에 앉아야 하는지, 앉을 수 있는지, 앉으려 할지, 앉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많이 흔들렸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그들이 기도와 찬양 및 다른 종교적 행위에서 교제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끝까지 함께 가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만은 확신한다. 또한 침수세례가 성찬에 앞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만큼 공동 기도와 찬양 등에 앞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도, 똑같은 분량의 말과 똑같은 이성과 성경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46]

이 시점에서 캠벨은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과의 성찬 교제에 대해 자신의 태도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아는 바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리스도인 형제로 보아야 한다고 분명히 믿는다. 그러나 침수세례가 공동 예배와 주님의 식탁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도 확신한다. 캠벨은 아직 경계선을 긋지 않았지만,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을 교회의 공동 예배, 특히 주님의 식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침례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더 명확해지면 그는 그 경계선을 긋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아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관용”의 견해는 유지한다.[47]

---

[44] Ibid., pp. 197-200.

[45] Ibid., p. 203: “나는 한때 너무나 엄격한 분리주의자였기에, 내가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긴 만큼 완전하지 않은 사람과는 누구와도 함께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않았다.”

[46] Ibid., p. 204.

[47] 침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Campbell의 성숙한 견해를 상세히 살펴보려면 이 책의 5장을 참조하라. *여기서 “이 책”이란 데이비드 플레처가 편집한 『침례와 죄 사함: 역사적 관점』을 말함.

## 2. "고대 복음" 연재의 역사적 배경

1826년의 나머지 기간과 1827년 전반기는 『크리스천 뱁티스트』에서 침례에 관한 중요한 언급 없이 지나갔다. 1827년 가을 신학과 실천이 모두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1828년 초 캠벨은 "고대 복음"에 관한 기념비적인 연재를 시작했다. 그가 최근에야 믿게 된 견해를 발표할 수 있도록 이끌고 격려한 것은 1827년 하반기의 사건들이었다. 그가 자신의 견해를 공개하도록 촉발한 사건은 두 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1) 존 시크레스트(John Secrest)와의 관계, (2) 월터 스콧(Walter Scott)의 설교 성공과 이와 관련된 켄터키 형제들의 성공이다.

*a. 존 시크레스트와의 관계.* 오하이오주 벨몬트 카운티와 먼로 카운티의 교회들을 섬기던 목사인 존 시크레스트 장로는 바턴 W. 스톤과 관련된 "크리스천 커넥션"(Christian Connection)의 일원이었다.[48] 1827년 초여름 그는 윌리엄 미첼(William Mitchell)과 함께 버지니아주 베다니의 알렉산더 캠벨을 방문했다. 그들은 침례, 특히 침례의 목적을 논의했다. 시크레스트가 신자들에게 침수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확인한 캠벨은 "그들을 무엇 안으로(into what) 침례를 베풉니까?"라고 물었다. 시크레스트가 어리둥절해하자 캠벨은 그들에게 그 제도가 지닌 더 큰 의미를 설명했다.[49]

다음 석 달 동안 시크레스트는 "30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동역자들의 사역까지 포함하면 침례 받은 전체 수는 1,000명을 넘었다. 8월 27일 캠벨과 다시 만났을 때 시크레스트는 사역의 열매를 보고하며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into the name of Christ) 침수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했다. 캠벨은 『크리스천 뱁티스트』에서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설명했다.

>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퀘이커 교도의 후손이었고, 이전에는 퀘이커 교도들이 이해하는 의미의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시크레스트 형제는 하나의 침례가 오순절의 그것도, 가이사랴에서 반복된 그것도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into the faith of Jesus) 받는 침수세례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모여드는 군중은 엄청났고, 배우지 못하고 훈련받지 않은 웅변의 옛 방식의 소박함으로 복음을 단순하게 선포한 결과 큰

---

[48] 이 책의 7장은 Stone의 운동과 그가 "Christian Connection"과 맺은 관계를 논의한다. * "이 책"에 대해 각주 47 참조.

[49] Hayden, pp. 80-81.

열기가 일어났다.[50]

시크레스트와 동료들이 개척지에서 얻은 반응에 캠벨이 놀랐다는 것은 분명하다. 당시 캠벨 자신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으라고 요청"하지 않았다.[51] 시크레스트가 정확히 어떻게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설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52] 그의 성공이 캠벨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그것은 월터 스콧을 통해 "고대 복음"을 실행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한 동기였을 수도 있다.

***b. 월터 스콧의 설교.*** 1826년 월터 스콧(Walter Scott)은 지역 아카데미에서 가르치기 위해 오하이오주 스튜번빌(Steubenville)로 이주했다.[53] 같은 해 알렉산더

---

[50] CB 5 (1827) 71-72.

[51] *Evangelist* 6 (1838), p. 275에 실린, Campbell이 Walter Scott에게 보낸 1832년 4월 19일자 편지.

[52] Scott은 Secrest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위해" 세례를 베풀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Secrest의 의미는 Scott 자신이 그해 후반에 그렇게 할 때의 의미와 같지 않았다는 것이다. *Evangelist* 6 (1838) 277-278 참조. 여기에는 일종의 "누가 먼저였는가"라는 경쟁의 기미가 있지만, 1827년에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Campbell은 Jeremiah Vardeman 장로도 Maccalla Debate 이후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MH 9 [1838] 470). Vardeman은 그 논쟁에서 Campbell 측의 사회자였다.

내가 보기에는 이 갈등의 해결책이 분명하다. Maccalla Debate의 영향으로 1827년 이전에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시행했을 법한 사람은 많았다. Campbell 자신도 그렇게 했다고 주장한다 (MH 9 [1838] 469). 그러나 Maccalla Debate의 세례 가르침은 1828년 *Christian Baptist*의 세례 가르침과 같지 않다. 1827년에 미묘한 전환이 일어났다. 특히 Scott은 이제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죄 사함이 실제로 주어지는 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 결과, Campbell이 1823년 이후 침례를 베푼 사람들 중 일부조차도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에 1827년 이후 다시 침례를 받았다 (*Evangelist* 6 [1838] 276 참조).

따라서 1823년 이후 개혁운동 안에서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시행한 사람들은 Maccalla Debate의 이해에 따라 그렇게 했다. 그 이해는 1827년에 크게 변했으므로, Scott이 서부 보류지에서 침례를 베풀기 시작했을 때 달라진 것은 실천뿐 아니라 신학도 마찬가지였다. Campbell은 이를 끝내 충분히 인정하지 못했으며, 이 점에서는 미묘한 자부심에 눈이 가려졌을지도 모른다. 그는 평생 자신이 1823년에 처음 "죄 사함을 위한 세례"를 설교했다고 주장했지만, 1828년에 쓴 내용이 1823년에 설교한 내용과 실질적으로 달랐다는 점은 인정하지 못했다 (MH 2 [1831], "Extra Defended," 2ff.와 9 [1848] 467-469 참조). 나는 Jones의 *Spiritual Plea*가 이 점에 관한 Campbell의 자부심에 오도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견해가 결코 바뀌지 않았다는 Campbell의 인식이 Jones 논증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53] 흥미롭게도 Scott이 Steubenville로 이주했을 때 그곳에는 세 개의 "개혁하는" 교회가 있었다. (1) Haldane파 교회 ("Church of Christ"라고 불림), (2) Stone파 교회 ("Christian Church"), (3) Mahoning Baptist Association에 속한 Regular Baptist Church였다. Scott은 첫 번째 교회에 가입했다. *Evangelist* 1 (1832) 94 참조.

캠벨의 초청으로 마호닝 침례교 협의회의 연례 회의에 참석했다. 1827년에 스콧은 8월 23-27일 열린 연례 회의에 다시 초청받았다. 그는 여러 "크리스천 커넥션" 설교자들(그중 한 명은 존 시크레스트)과 함께 참관인으로 참석했다.[54] 회의에서 오하이오주 브리치빌 (Breachville) 교회는 교회들을 순회하며 성장을 돕는 전도자를 협의회가 고용할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의 전년도 순 증가는 16명에 불과했고, 전년도에는 18명뿐이었으므로 필요가 컸다. 전체 교인은 492명뿐이었다. 월터 스콧이 전도자로 선정되었다.

처음 몇 달 동안 스콧의 성공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827년 11월 18일은 그의 설교관을 바꾸는 날이 되었다. 윌리엄 어멘드(William Amend)는 스콧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이야기를 전했다.

> 이제 형제여, 당신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나는 1827년 11월 18일에 침례 받았으며, 그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것이 복음이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곧 우리의 죄 사함이오! 베드로가 전파한 바로 그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언젠가 듣기를 바라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그와 함께 가겠소." 그러므로 형제여, 당신이 내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본 그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성경은 더 이상 봉인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뜻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죄 사함을 위해 침례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라고 외쳤을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오랫동안 찾던 사람을 만났구나!"라고 외칠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 내 앞에 놓인 소망을 기꺼이 붙잡았습니다.[55]

---

[54] 이 모임에 관한 상세한 논의와 공식 회의록은 Hayden, pp. 54-71에서 볼 수 있다. Baxter, pp. 83-86도 참조.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본문의 설명은 Hayden에서 가져왔다.

1827년의 이 연례 모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협의회의 교파적 성격을 없애기로 한 결정이었다. 협의회는 자신의 교파적 성격을 내려놓고 "Christian Connection"의 설교자들을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표결했다. 1830년에는 교회 조직으로서 스스로 해산하고 단순히 교제와 기도를 위한 연례 모임이 되기로 표결했다. 1827-1829년의 부흥이 개혁파와 Christian 계열 신자들의 일치와 교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의는 Ronald Bever, "The Influence of the 1827-29 Revivals on the Restoration Movement," *Restoration Quarterly* 10.3 (1967) 134-147 참조.

[55] Baxter, p. 113. Baxter는 이렇게 논평한다. "당시 종교사의 한 시대를 여는 이 사건은 1827년 11월 18일에 일어났으며, Amend 씨는 의심의 여지없이 근대에 사도적 가르침과 관행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례 의식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었다" (p. 108). John Secrest, 그리고 틀림없이 Alexander Campbell도 여기서 Baxter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다.

이 사건과 그로부터 스콧이 배운 교훈은 성의 수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열흘 안에 3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56] 3주 안에는 101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2월 첫 9일 동안 56명).[57] 모두 합해 스콧과 동료들은 6개월 동안 800명에게 침례를 베풀었다.[58] 수가 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의 일꾼들도 늘어났다. 시크레스트는 6개월 동안 530명에게 침수세례를 베풀었다.[59] 1827년 11월 1일부터 1828년 5월 1일까지 제러마이아 바드먼(Jeremiah Vardeman)은 550명에게 침수세례를 베풀었다. 켄터키주 몽고메리의 존 스미스(John Smith)는 3개월 동안 339명에게 침수세례를 베풀었다.[60] "죄 사함을 위한 침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도입과 함께 "개혁"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스콧은 자신의 설교의 요지를 1829년 3월 2일자 『크리스천 뱁티스트』에 실린 글에서 요약했다.[61]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178쪽).

> 복음은 인류에게 주는 기쁜 소식의 내용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죄 사함, 성령, 영생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높은 주제들은 다음과 같이 배열되었다.

---

[56] CB 5 (1828) 173, Scott의 1827년 12월 4일자 편지에 보고됨. Campbell은 이를 "*고대 복음*을 설교하는 실험"이라고 부른다. Campbell은 Scott이 "*고대 복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걱정하게 되었거나, 적어도 책임 있는 누군가가 그 설교를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는 아버지 Thomas를 보내 Western Reserve에서 며칠 동안 Scott과 함께 지내게 했다. Thomas Campbell은 돌아와 이를 "과감한 추진"이라 부르며 강력하게 지지했다. *Evangelist* 6 (1838) 270ff와 Baxter, pp. 158ff. 참조.

[57] CB 5 (1828) 200, Scott의 1828년 2월 10일자 편지에 보고됨.

[58] CB 5 (1828) 271-272.

[59] CB 5 (1828) 173. CB 5 (1828) 130에서 Campbell은 Secrest가 1827년 11월 23일까지 49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그가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침례를 원초적 단순성과 의미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한 지 겨우 약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ecrest가 1827년 11월 Campbell을 만난 뒤, Scott은 Secrest의 동료 James G. Mitchell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Secrest와 Mitchell은 Scott이 Wellsburg의 Campbell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를 만났었다. Hayden, pp. 93-94 참조.

[60] CB 5 (1828) 271-272. Ohio의 Western Reserve에 있던 Mahoning Association은 이후 3년 동안 Scott과 그의 동료들을 통해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반면 그 이전 2년 동안에는 협의회 전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이 100명도 되지 않았다. MH 1 (1830) 415, 449 참조. 1830년의 Mahoning Association은 1827년 당시 같은 교회들의 규모보다 6배나 컸다.

[61] CB 6 (1829) 177-179. 저자는 "Philip"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했는데, 이는 Scott이 사용한 이름이다. Campbell은 CB, 4 (1827), p. 240에서 그의 신원을 밝혔다. Scott은 Luther의 오른팔인 Philip Melancthon을 기리기 위해 이 이름을 사용했다. Baxter, pp. 117-126은 "고대 복음"을 설교하는 Scott의 관점을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 믿음, 개혁, 죄 사함을 위한 침례, 성령, 영생. 그러나 이 순서는 얼마나 뒤섞였는가.… 어떤 이들은 죄 사함의 침례를 물 뿌림으로, 어떤 이들은 회개의 자리로 바꾸었다.… 또 어떤 이들은 침수세례를 베풀지만 죄 사함을 위해 베풀지는 않는다.…

사실상 스콧은 캠벨 부자와 자신이 여러 해 동안 논의했던 것을 실천에 옮겼다. 회개의 자리는 죄인들을 회개로 부르는 길도, 구원을 찾는 장소도 아니다. 스콧은 이것이 마호닝 협의회의 전도에서 문제였다고 보았다. 캠벨은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메시지로 전도하기로 한 스콧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그는 사역 현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답을 찾는 죄인에게 현대 부흥운동가들의 회개의 자리나 불안의 자리(anxious seat)보다 더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며 위로가 되는 무언가를 제시할 필요를 느꼈다. 그는 교회의 고대, 곧 원래 상태에 대해 많이 생각했으나 이제 세상의 회심과 실제로 관련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고대 질서에 특별히, 실천적으로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회개의 자리와 불안의 자리를 거부했고, 대신 무엇을 제시했는가? 죄 사함을 위한 침례였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말한 그대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고 말하기로 이미 합의했었다. 또한 "제자들", 곧 주님을 섬기려는 이들에게 "서둘러 일어나 침례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죄를 씻으라"고 말하기로 했다.* [*『맥칼라 논쟁』, 144쪽.] 그러나 이제 실제 사역 현장에서 이것은 그에게 새로운 계시와 같았다. 그는 큰 열정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설득했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왔다.[62]

그러나 스콧은 여기에 새로운 정식을 도입했다. 그는 죄가 이미 사해졌음을 단순히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침례를 베풀었다. 캠벨은 스콧이 "새로운 문구", 곧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침례를 베풉니다"라는 문구로 침수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서 이 새로움을 암시했다. 이어 "이 대담한 방식이 공동체 전체를 일깨웠다"고 말했다. 캠벨은 이후 이 새 문구를 약간 수정하여 받아들이게 된다.[63]

### 3. "고대 복음"의 이해

1828년 첫 호인 1월 7일자에서 캠벨은 "고대 복음"이라는 제목의 연재를 시작했다.[64]

---

[62] MH 20 (1849) 48.

[63] MH 9 (1838) 469.

[64] CB 5 (1828) 128-130; 164-168; 179-182; 221-223; 229-232; 254-257; 276-279와 CB 6 (1828) 14-17; 72-74; 97-100. 또한 Campbell은 "A Catalogue of Queries--Answered," 6 (1829) 164-168, 192-197이라는 두 글에서 이 연재에 관한 질문에 답했다. 실제로 Campbell은 "Ancient Gospel" 연재를 전년 12월호에서 시작하려 했지만 (CB 5

이 연재는 1828년 1월 7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10편으로 이어졌다. 왜 이 연재를 시작했는지 돌아보며 캠벨은 그 목적이 "나의 논쟁[맥칼라와의 논쟁—JMH]에서 제시한 침례의 참된 의미가 온갖 지나친 해석과 새로운 주장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썼다.[65] 그는 자신의 견해가 잘못 해석되거나, 적어도 선의의 설교자나 개인이 자신의 이름과 연결되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주장할까 염려했던 듯하다. 그래서 많은 침례자가 생겼다는 첫 보고들이 들어온 뒤 그는 침례 신학을 충분히 발전시키는 긴 논고를 쓰기 시작했다. 실제로 캠벨은 저술에서 언급하지 않지만, 스콧은 1827년 12월 그를 방문해 이 연재를 쓰도록 격려했다.[66] 캠벨은 운동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때에 이 문제에 대한 운동의 생각을 형성할 기회를 보았다. 또한 이때는 맥칼라 논쟁에서 말한 것을 넘어, 스콧처럼 이제 "죄 사함을 위한[죄 사함을 받기 위한] 침례"를 대담하게 주장할 시기이기도 했다.

캠벨은 연재에서 맥칼라 논쟁과 상반되는 입장을 제시하게 되었지만, 시작부터 당시 말한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상세히 설명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맥칼라 논쟁에서 자신이 말한 내용을 잘못 진술하면서 현재 지닌 침례 목적관에 맞추어 재해석했다. 연재 첫 문단에서 그는 말한다.

> 1823년 켄터키에서 맥칼라 씨와 이 주제를 논쟁할 때, 나는 침례가 합당한 대상자에게 죄 사함을 실제로 소유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신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곧 믿는 모든 대상자에게 죄 사함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전달한다고 주장했다. 그 견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기에 당시에는 많이 망설이면서 제시했다.[67]

위의 맥칼라 논쟁 분석에 비추어 보면, 캠벨은 당시 발언에서 쉽게 드러났던 것과 다른 해석을 자신의 말에 부여했음이 분명하다. 이제 그는 침례의 순간에 죄 사함을 "실제로"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맥칼라 논쟁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다. 그러나 변화를

---

[1827] 123 참조), 지면이 부족했다. 캠벨이 12월호에 게재할 논설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은, 초기에 스콧의 성공이 캠벨의 동기 형성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오히려 시크레스트(Secrest)의 성공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설령 캠벨이 1827년 12월에 스콧의 성공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도(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당시 스콧의 성과는 시크레스트의 성과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었다..

[65] MH 9 (1838) 489.

[66] Scott, *Evangelist* 6 (1838) 278-281 참조. 실제로 Scott은 Campbell에게 침례보다 믿음을 논의하는 것으로 연재를 시작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Campbell은 곧바로 핵심을 다루기로 했다.

[67] CB 5 (1828) 128.

알려 주듯 캠벨은 최근 "그리스도교 신앙의 필수 부분으로서 이를 더 충분히 검토하도록 부득이 요청받았고", 이제 "그 의미를 전개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에서의 유익과 가치를 입증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고 덧붙인다.[68]

*a. 고대 복음의 순서.* 세 번째 글의 끝에서 캠벨은 "고대 복음"의 순서를 밝힌다. "먼저 예수를 믿음, 다음은 침수세례, 그 다음은 용서, 그 다음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 다음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다.[69] 이것이 세 편의 논증을 거친 그의 결론이다.

그는 침례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유형론적 관계에 주목하며, 특히 히브리서 10:22에 추론의 근거를 둔다. 그는 "그리스도교 침수세례는 그리스도교 성전 또는 예배에서 유대교의 물두멍, 곧 정결의 씻음이 차지했던 것과 동일한 자리에 있다. 즉 그리스도의 희생과 받아들여지는 예배 사이에 있다"[70]는 명제를 제시한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씻어야 했듯이, 신자도 받아들여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침례 의식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요한복음 3:5, 디도서 3:5, 에베소서 5:26을 제시하며 캠벨은 그리스도교 침수세례가 구약 제사장들의 정결 목욕의 실체라고 결론짓는다. "씻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를 알려 준다는 것이다.[71]

침례가 구약의 "씻는 의식"에 대응하므로, 캠벨은 신약이 "하나님께서 침수세례 행위 안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명백히" 확언한다고 논증한다.[72] 그는 제자들이 자기 죄가 사해진 특정 순간과 "그것을 통해 또는 그 안에서 죄가 용서된 특정 행위"를 의식했다고 주장한다. 그 행위는 그들이 기억하거나 잊을 수 있는 씻음이었다.[73] 캠벨은 죄 사함과 침례의 연결을 입증하려고 사도행전 2:38을 제시한다. 거기서 베드로는

---

[68] CB 5 (1828) 128.

[69] CB 5 (1828) 182. Campbell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은 순서는 연재의 아홉 번째 글에 나온다. 그는 믿음, 개혁(회개), 침례, 죄 사함, 성령, 영생이라는 여섯 요소를 제시한다. 그는 이것들이 "원인과 결과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 순서대로 구원의 기쁜 소식에 포함된다"고 쓴다 (CB 6 [1828] 72 참조). Scott은 설교를 단순하게 하려고, 곧 다섯 손가락을 활용하기 위해, 이 순서를 믿음, 회개, 침례, 죄 사함, 성령으로 줄였다 (MH 3 [1832] 298 참조).

[70] CB 5 (1828) 128-129.

[71] Ibid. 또한 CB 5 (1828) 166: "그리스도인의 침례 외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공적이고 외적이며 상징적인 *씻음*이 없음을 우리는 모두 인정한다. 그것을 *씻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씻는 의례였음을 나타낸다."

[72] Ibid., p. 165.

[73] Ibid., p. 166.

"회개 또는 개혁과 침수세례를 용서에 똑같이 필요한 것으로 삼았으며", 이 주제에 대해 다른 말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이 명령만으로 "충분하다"고 했다.[74] 베드로의 이 말에 따라 캠벨은 사람이 "물 아래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침수세례는 물로 표현된 복음이다"(Christian immersion is the gospel in water).[75] 사도행전 22:16, 8:40, 베드로전서 3:21, 로마서 6장을 제시한 뒤 그는 "그리스도교 침수세례"가 "일차적으로 죄 사함을 위해 고안되었다"고 결론짓는다.[76]

다섯 번째 글에서 캠벨은 "성령의 선물" 문제를 다룬다. 성령은 죄책이 정결해지지 않은 마음에 거하실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령을 받기 전에 마음이 정결해져야 한다".[77] 용서받기 전에 침수세례가 요구되므로, 성령을 받기 전에도 침수세례가 요구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믿고 침수세례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책 전체에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거나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동안 도와 주시리라고 기대할 근거로 의지하거나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이 단 하나도 없다".[78] 캠벨의 논리는 거침없다. 성령의 선물은 침수세례의 결과이다.

> 용서는 침수세례를 통해 주어지며, 둘째로 거룩함의 영은 죄가 사해지지 않은 어떤 마음에도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도덕적 왕국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79]

따라서 "고대 질서"는 믿음, 침수세례, 용서, 성령을 받음이며, 그 뒤에 신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믿음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진행되는 이

---

[74] Ibid., p. 167. 사도행전 2:38의 논의를 시작하면서, 그는 *eis* ("위하여")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라는 뜻임을 분명히 한다 (p. 167).

[75] Ibid., p. 168. 이 글의 앞부분에서 Campbell은 주의 만찬이 "*빵과 포도주*로 표현된 복음"인 것처럼, 세례는 "*물*로 표현된 복음"(baptism is the "gospel in water," just as the Lord's supper is the gospel in bread and wine")이라고 말했다. 둘 다 복음의 사실들을 보여주는 외적 의식이기 때문이다. CB 5 (1828) 164 참조. (Scott은 이 표현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았다. *Evangelist* 6 (1838), p. 281 참조.) 더 나아가 Campbell은 사람이 침례 행위의 "바로 그 순간", 곧 "그 행위 안에서,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 (CB 5[1828] 167 참조).

[76] Ibid., p. 180.

[77] Ibid., p. 231.

[78] Ibid., p. 232.

[79] Ibid., p. 232.

순서는 19세기 초에 혁명적이었다. 개척지의 칼뱅주의적 맥락에서 통상적인 순서는 성령에 의한 중생, 믿음, 용서, 그리고 침수세례였다.[80] 이러한 배경 때문에 많은 침례교인이 "고대 복음" 연재에서 캠벨이 제시한 내용에 충격을 받았다.[81] 이 순서를 사용함으로써 그는 필연적으로 중생을 침례의 맥락에 놓는다. 이 이해에 따르면 가장 엄격한 의미에서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캠벨은 명시적으로 말한다.

>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행위, 아니 오히려 중생의 행위 자체이다. 그 안에서 사람이 올바르게 거듭나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것 없이는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새로운 경륜에서는 침례 받지 않은 자에게 어떤 기도나 찬양의 노래, 경건의 행위도 명령되지 않는다. 믿음 다음으로 침수세례는 필수불가결한 조건(sine qua non)이며, 이것 없이 어떤 것도 받아들여지게 수행할 수 없다. 아무도 이 입장이 지나치게 대담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지브롤터 성의 어떤 수비대보다도 여기서 더 난공불락이라고 느낀다. 달리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나를 시험해 보라.[82]

***b. 근본 원리.*** 부흥운동이 활발하던 개척지의 큰 관심사, 더 넓게는 신학 일반의 관심사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였다. 미국 개척지에서는 회개의 자리와 칼뱅주의 신학이 결합되어 이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그 상황에서 구원을 안다는 것은 객관적 사건이 아니라 내적 감각과 주관적 감정에 달려 있었다. 캠벨과 다른 개혁자들은 침례를 불안의 자리에서 찾던 주관적 확신 대신 신자에게 객관적 확신을 주는 사건으로 보았다. 따라서 침례는 캠벨이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속"(sensible pledge)[83]이라고 부른 것을 준다. 그는 "감각적"을 육체의 외적 감각, 곧 오감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침례는 객관적 사건이다. 눈에 보이고 몸으로 수행된다. 정신적인 것과 달리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침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자신의 죄를 씻고, 자신을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을 회심자에게 준다".[84]

---

[80] Campbell은 여러 차례 이 점에 주의를 환기한다. 실제로 그는 바로 이 순서의 문제에서 장로교인, Regular Baptist, 퀘이커교도, 그 밖의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도표를 만들었다 (CB 6 [828]72-73 참조).

[81] *Christian Baptist*에서 이런 반응이 처음 확인되는 사례는 CB 6 (1828), 23-24에 실린 J.의 편지이다. 더 상세한 반응은 CB 7 (1830) 173-176에 실린 "C. F. of Baltimore, MD"의 편지를 참조하라.

[82] CB 5 (1828), 231.

[83] Ibid., p. 279.

[84] Ibid.

침례는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곧 객관적 사건이므로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연결된다. 신자는 자신이 구원받은 정확한 순간으로 특정 시점을 돌아볼 수 있다. 이는 캠벨에게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됨에서 나오는 다른 복들과 마찬가지로 죄 사함도 전달되는 순간과 매개가 있다. 이 점은 충분히 탐구할 가치가 있으며 가장 명료하게 입증할 수 있다. 이전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명확한 순간이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이 복을 전달하는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렇게 널리 이해되지 않는다.…
>
> 실제로 믿음은 용서에 접근하게 하는 위대한 매개이다. 그러나 그 복을 실제로 누리려면 그것이 예수의 피를 통해 온다는 확신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얻은 사람들은 죄 사함을 위해 침수세례 받거나, 일어나 침수세례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죄를 씻으라는 명령을 받았다.[85]

여기서의 선택은 확신의 주관적 근거와 객관적 근거 사이, 용서를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순간적으로 인식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다. 캠벨은 확신이 주관적 감정에 근거하고 신자가 이를 점진적으로만 알아간다는 정규 침례교인들의 일반적 태도를 비판한다. 그는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내적 감각이나 감정에서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을 끌어낼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 확신은 침수세례라는 객관적 사건에 순종하면 죄를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증언에서 나왔다".[86] 확신에 관한 한 질문자에게 답하면서 캠벨은 자신의 생각을 요약한다.

>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의식하게 되는 것은 즉각적이든 점진적이든 어떤 내적 충동이나 음성이나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더 확실하고 확고한 토대, 곧 우리의 귀에 주어진 하나님의 증언에서 비롯된다. 작용이나 충동이나 감정을 확신의 근거로 삼는다면, 가장 중요한 지식을 가장 불확실한 토대 위에 세우는 셈이다.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또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다."
>
> 예를 들어 나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증언을 사도적 의미로 믿는다. 그러면 죄 사함을 위해 침수세례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음을 깨닫는다. 나는 일어나 순종한다. 그런 다음 죄 사함을 받고 이를 확신한다. 하나님은 속이실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다.[87]

일부 침례교인들에게 이는 신자가 침례라는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처럼

---

[85] Ibid., pp. 254-255.

[86] CB 6 (1829), p. 166.

[87] Ibid., pp. 165-166.

보였다. 그것은 은혜와 모순되었다.[88] 캠벨은 신자가 믿는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침수세례 받는 행위로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의 확신을 얻고 언제 용서받는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행위를 죄 사함의 매개로 지정하신" 것을 은혜의 행위로 본다.[89] 신자는 하나님의 증언을 믿고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이 되도록 고안된 특정 행위로 순종했으므로, 자신의 침수세례라는 객관적 사건을 바라보며 사면에 대한 충만한 확신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침례는 인간의 행위라기보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침례는 신자의 죄가 사해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은 맥칼라 논쟁에서 캠벨의 입장이었지만, 이제 그는 더 나아가 침례가 신자의 죄가 사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c. 용서의 순간.* 캠벨의 독자들은 그의 견해가 새롭다는 것을 거의 즉시 알아차렸다. 한 독자는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질문을 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침례 받기 전에 이미 실제로 용서받은 상태가 아닌가?" 물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신자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므로 명백히 "그렇다"라고 답할 것이다. 캠벨의 답변은 그가 맥칼라 논쟁에서 보인 입장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지 보여 준다.

> 사람이 씻기 전에 깨끗하다는 말인가!! 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 사이에 상상적이거나 인위적인 경계선만 있을 때, 나는 종종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오하이오에 있을 때는 경계선에 아무리 가까워도 언제나 알 수 있다. 오하이오강을 건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자연과 은혜의 영역 사이에 단지 인위적인 선을 그어 두지 않으셨다. 침례 받기까지 누구도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갖지 못한다. 침수세례 전에 죄가 사해져 용서받았다고 의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겠다. 그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90]

또 다른 질문자는 믿음만으로 천상의 상을 받을 자격을 얻는지 물었다. 긴 답변에서 캠벨은 단호하게 시작한다. "나는 명백히 답한다. 아니다."[91] 그는 독자들에게 칼뱅주의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죄 사함을 위해 침수세례

---

[88] CB 7 (1830) 173-176. Campbell의 답변은 pp. 176-181에 실려 있다.

[89] Ibid., p. 181.

[90] CB 6 (1829) 197.

[91] Ibid., p. 194. CB 7 (1830) 176-177에서 그는 또 다른 반론자에게 답한다. "나는 믿음만으로 죄가 용서된 사례를 단 하나도 알지 못한다...그러나 이전 경륜에서는 용서를 위해 피가 필요했고, 새 경륜에서는 물이 필요하다. 둘 모두에서 믿음은 행동의 원리이다. 그리고 피와 물은 하나님이 죄 사함을 베푸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이지, 이를 행하는 주체가 아니다."

받으라고 촉구한다. “은총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여러분 자신과 행위가 받아들여지게 하라. 그러면 주님이 모호함이나 속임 없이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여러분이 잘 행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잘하였도다’라고 아첨하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하라.”[92] 용서는 믿음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한 침수세례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다.

이 두 질문자에 대한 답변은 1823년의 캠벨과 1828년의 캠벨을 구별해 준다. 맥칼라 논쟁에서 바울은 침수세례 전에 “실제로 용서받았지만”, “고대 복음”에서는 침수세례 받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93] 캠벨은 신자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침수세례의 “바로 그 순간”과 “행위” 안에서라고 끊임없이 강조한다. 예컨대 그는 말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침수세례를 통해, 곧 그 행위 자체를 통해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진지하게 주장한다.”[94]

1828년의 캠벨에 따르면 죄 사함은 침례 안에서 실제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받는다(in baptism both actually and formally). 맥칼라 논쟁에서는 침례 행위 안에서 공식적으로만 받았으며, 실제로는 믿음의 시점에 이미 받았다. 이 차이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 주는 사례는 버지니아의 정규 침례교인 앤드루 브로더스(Andrew Broaddus)와 캠벨이 글로 논의할 때 나타난다.

1830년 7월 5일 캠벨은「죄 사함에 관한 특별호」를 발행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한 침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옹호하기 위한『밀레니얼 하빈저』의 부록이었다. [95] 버지니아의 주요 침례교 지도자인 앤드루 브로더스는『특별호 검토』(Extra Examined)라는 소책자로 답했고, 캠벨은 자신의「특별호 변론」(Extra Defended)에서 48쪽에 걸쳐 응답했다.[96] 브로더스를 향한 캠벨의 비판은 1831년의

---

[92] CB 6 (1829) 195.

[93] CB 5 (1828) 222, 256 참조.

[94] Ibid., 277.

[95] MH 1 (1830), “Extra.”

[96] MH 2 (1831), “Extra Defended”는 제2권의 뒤에 부록으로 붙어 있다.

Andrew Broaddus (1770-1848)는 Virginia의 침례교인들 가운데 Campbell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그의 아들이자 전기 저자에 따르면, “C[ampbell] 씨가 개혁 초기에 만난 모든 반대자 가운데 Broaddus 장로는 단연 가장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 A[ndrew] B[roaddus]에게서 C[ampbell] 씨는 자신과 겨룰 만한 적수를 만났다” (Andrew Broaddus, ed. *The Sermons and Other Writings of the Rev. Andrew Broaddus, with a Memoir of His Life by J. B. Jeter, D.D.* [New York: Lewis Colby, 1852], p. 29). Broaddus와

캠벨과 1823년의 캠벨을 대조시킨다. 그는 썼다.

> 우리의 친구 브로더스는 구원의 역사에서 침례에 어떤 도구적 역할도 주지 않는다. 그는 침례가 "그 대상자, 곧 용서받은 죄인(그렇다, 용서받은 죄인)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주님의 봉사에 받아들여진다"는 사실과, "그가 눈에 보이게, 곧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다는 약속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만 나타낸다고 말한다(39쪽). 이것이 그리스도교 제도에서 침례가 지닌 도덕적·종교적 가치, 곧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주님의 봉사에 받아들여지는 상호 약속이라는 것이다.[97]

브로더스의 입장은 캠벨이 침례의 공식적 의미를 죄 사함에 명시적으로 연결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맥칼라 논쟁의 캠벨과 거의 다르지 않다. 브로더스는 이를 상호 약속으로 생각하지만 맥칼라 논쟁의 캠벨은 주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 그럼에도 1831년의 캠벨은 브로더스의 입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침례라는 행위 안에서 바로 그 순간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주장한다(in baptism one receives, in that act and at that very instant, the remission of his sins, both formally and actually).

***d.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가?*** 캠벨이 침수세례 전에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자연히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가 문제된다. 독자들은 이 문제를 놓치지 않았다. 한 질문자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모든 교파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천국에서 함께 앉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땅에서는 그들과 함께 앉지 않습니까?" 캠벨의 답은 거의 그의 일관된 방침이 되었다. 그는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덧붙였다.

> 그러나 땅에 있는 동안 나는 내가 놓인 질서에 따라 살고 행동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천국의 방식과 관습에 따라야 한다면, 왜 땅에는 천국의 사회 질서와 다른

---

Campbell은 1825년 늦가을에 처음 만났으며 (Broaddus, p. 24), 몇 년 동안은 서로 우호적으로 지냈지만, Broaddus는 결국 Campbell과의 교제를 끊었다. 그의 아들은 "Extra on Remission of Sins"가 마지막 결정적 계기였다고 말한다. "Broaddus 씨는 C[ampbell] 씨를 자신이 오류의 길이라고 여긴 데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장 늦게까지 버리지 않은 사람 중 하나였다...그러나 그의 독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가 더 충분히 드러난 MH Extra의 출현은 그의 모든 희망에 종지부를 찍었다" (p. 28).

[97] *MH* 2 (1831), "Extra Defended," p. 1. Broaddus와 Campbell은 1842년 *MH* (pp. 145-150)에서 다시 맞섰다. Broaddus는 다시 "죄 사함이 세례와 연결되는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인 죄 사함"이 "이후 행위의 수행", 곧 세례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부정한다. 그는 세례가 "*가시적 증명서*"이며, "죄 사함의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증*—죄를 *형식적으로* 씻어내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Campbell은 세례 행위에서 실제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 질서가 제정되었겠는가? 천국에는 빵도 포도주도 물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땅에서는 그것들을 사용하는가? 그러나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제도의 모든 부분이 현재 상태에 필요하고, 천국의 순결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여 천상의 상태를 준비하기 위한 것임을 숙고한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을 것이다.[98]

캠벨은 천국의 영광과 통치, 그리고 땅 위의 하나님의 나라(가시적 교회)를 일관되게 구별한다. 또 다른 반론자가 침례를 칭의(죄 사함)의 시점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의 훌륭한 인물들 대부분"의 의롭다 함을 부정했다고 주장하자,[99] 캠벨은 이렇게 답했다. "많은 이들은 최종 완성 때 드러날 구원과 현재 구원의 누림을 혼동한다. 현재 구원은 주로 죄책과 오염과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믿음과 침수세례를 통해 선포되었다."[100] 캠벨은 누가 천국에 갈지 가지 못할지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믿음이 있든 없든, 할례나 침례나 율법이 있든 없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지 말할 수 없다. 다만 중보자의 개입이 "그들의 구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101] 그는 하나님의 증언에 따르는 이들, 곧 예수의 피에 대한 믿음으로 침수세례 받는 이들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말할 것이다.

여기에는 실제로 두 질문이 잠재되어 있다. 첫째,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둘째, 땅에서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떡을 떼어야 하는가? 둘째 질문에는 캠벨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답한다. 침례 받지 않은 사람과 성찬 교제를 할 권위적 근거는 없다.[102] 더 나아가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므로, 침수세례 받은 사람도 그와 함께 받아들여지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는 "고대 복음" 연재의 첫 세 글에서 전개된 캠벨 논증의 직접적 함의이다.

그러나 첫째 질문은 더 어렵다. 캠벨은 명백하게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답한다. 다만 그는 다음을 개인적 의견으로 지닌다. "단순한 실수나 무지 때문에 명령을 소홀히 했으나 거부감은 없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려는 뜻이 있다면, 주님은 그 실수 때문에 이생에서 용서나 칭의를 확신시켜 주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못했고

---

[98] CB 6 (1829) 193-194.

[99] CB 7 (1830) 174.

[100] CB 7 (1830) 176.

[101] CB 7 (1830) 176.

[102] MH 1 (1830) 474.

따라서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영원한 나라에 받아들이실 것이다."[103] 그러나 캠벨은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용서의 충만한 확신을 받도록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격려했다.[104]

요약하면 캠벨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고 정직한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는다. 그들의 상황과 무지 등을 고려하여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받아들이시리라는 소망이다. 그는 이 소망을 하나님이 믿음 없이 "유아, 지적 장애인, 이교도 등"을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에 비유한다.[105] 그러나 믿음 없는 이교도의 경우처럼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캠벨은 천상의 영광에 대한 이생의 확신을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증언은 죄 사함을 연결하도록 지정하신 의식, 곧 침례에 순종한 이들에게만 땅에서 확신을 준다. 캠벨은 말한다.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증언하신, 정해지거나 명령된 행위는 단 하나뿐이다. 이 행위는 그리스도교 침수세례다."[106] 따라서 침수세례 받은 사람만이 가장 충만한 의미에서 제자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 결과 땅 위의 가시적 교회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침수세례 받은 사람뿐이다.

### E. 결론

우리는 1812년 캠벨의 침수세례부터 1830년 『밀레니얼 하빈저』의 시작까지 그의 침례 신학을 추적했다. 1830년 「죄 사함에 관한 특별호」를 출판할 무렵 그는 성숙한 침례관에 도달했다.[107] 그러나 그의 신학적 사고는 몇 차례의 중요한 수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발전하였다.

첫 번째 조정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루어졌다. 그는 분리파의 성장 배경에서 나온 교파주의를 거부하고 침례는 교제의 조건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장로교적

---

[103] MH 2 (1831), "Extra Defended," 44-45.

[104] MH 1 (1830) 474.

[105] MH 2 (1831), "Extra Defended," 44. CB 7 (1830) 176도 참조.

[106] CB 6 (1829) 165.

[107]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1830년 이후 추가적인 발전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Joseph Belcastro, *The Relationship of Baptism to Church Membership* [St. Louis, Missouri: The Bethany Press, 1963], pp. 24-27) 참조), 그것은 이 글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맥락에서 그는 유아세례가 불확실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조정은 1812년 첫 딸이 태어났을 때 이루어졌다. 침수세례와 신자의 침례 문제를 다시 연구한 뒤 그는 모든 신자가 침수세례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유아 때 세례를 받았음에도 자신은 침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단순한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정규 침례교 목사 루스에게 침수세례를 받았다. 이때 캠벨이 자신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았다는 점은 확실하다. 워커 논쟁은 그가 침례를 구원과 중요한 의미에서 연결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1823년 맥칼라 논쟁 이전에 그가 경건하지만 침수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구원을 의문시하거나 의심했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1812년 침례 받을 때 그가 구원받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오히려 무지 때문에 소홀히 했던 명령에 단순히 순종한 것이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이전 삶을 "비그리스도인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세 번째 조정은 2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1821년 가을부터 1823년 가을까지 캠벨은 죄 사함을 위한 침례라는 개념을 접하고 숙고했다. 에렛의 소책자가 이 개념을 소개했다. 그 소책자를 읽은 스콧 및 아버지와의 토론은 그의 첫 인상을 강화했다. 그러나 맥칼라와의 논쟁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철저히 연구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스콧 모두와 의논한 뒤, 맥칼라 논쟁에서 새로운 이해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실제로 캠벨은 침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다. 자신도 이를 "새로운 것"이라고 불렀다. 논쟁에서 그는 자신의 입장을 침례교 형제들의 입장과 구별했다. 그러나 강조점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에렛의 입장과 같았다. 침례는 죄 사함과 "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연결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침례는 신자의 죄가 앞서 믿음으로 사해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또한 침례가 참된 제자, 곧 가시적 교회 구성원의 표지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 조정은 1827년 가을과 1827-1828년 겨울에 이루어졌다. 스콧이 회개의 자리와 불안의 자리를 버리고 청중을 죄 사함을 위해 침례의 물로 대담하게 초대하기 시작한 뒤, 캠벨은 침례와 죄 사함의 연결을 더 명시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침례는 더 이상 단순한 상징이나 이미 일어난 일의 표징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오히려 죄 사함이 주어지는 순간, 찰나,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죄 사함이 주어지는 행위 자체로 여겨졌다. 침례 사건은 죄 사함의 순간이었다. 신자의 죄는 믿었을 때가 아니라 침수세례 받았을 때 사해졌다.

이 견해는 정규 침례교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몇몇 교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것은 회개의 자리나 불안의 자리를 없앴다(이 점은 “크리스천 커넥션”의 많은 이들도 불편하게 하여 캠벨과의 연합을 막았다[108]). 또한 주관적 체험 속 성령의 역사를 확신의 근거로 삼는 것을 없앴다. 침례 전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배제했고, 침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논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침례교 협의회가 알렉산더 캠벨과 관계를 끊고 그를 규탄하기 시작했으며, 그 모든 조치에는 “물에 의한 구원”(water salvation) 문제가 포함되었다.[109] 침례교 전체와의 결별은 “고대 복음” 연재에 나타난 침례의 목적에 대한 캠벨의 견해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1809-1828년의 캠벨은 침례관이 고정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장로교적 입장(1809)에서 침례교적 입장(1812)으로, 이어 수정된 침례교적 입장(1823)을 거쳐 마침내 고대 복음에 대한 성숙한 견해(1828)에 이르렀다. 오하이오, 켄터키, 버지니아에서 개혁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할 때 설명된 이 성숙한 견해가 미국 환원운동을 지배했다. 그것은 그 운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

[108] Dean Mills, *Union on the King's Highway* (Joplin, Missouri: College Press Publishing Company, 1987), pp. 67-68; 146-147 참조.

[109] 이것은 침례교인들 쪽에서 일어난 분명한 변화였다. “Ancient Gospel” 연재 이전에도 Campbell에 대한 적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는 용인되었다. 실제로 1820년대 초 그들이 그에게 항의했을 때, 동기가 된 것은 세례 문제가 아니었다. 그 동기는 성령이나 교회 질서 등에 관한 그의 견해였다. “Ancient Gospel” 연재 이후에야 비로소 세례가 개혁파와 침례교인들 사이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이는 1827년 말과 1828년에 Campbell의 세례 신학과 실천에 실제로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각주 96의 Broaddus 사례는 이 결론을 잘 보여준다.